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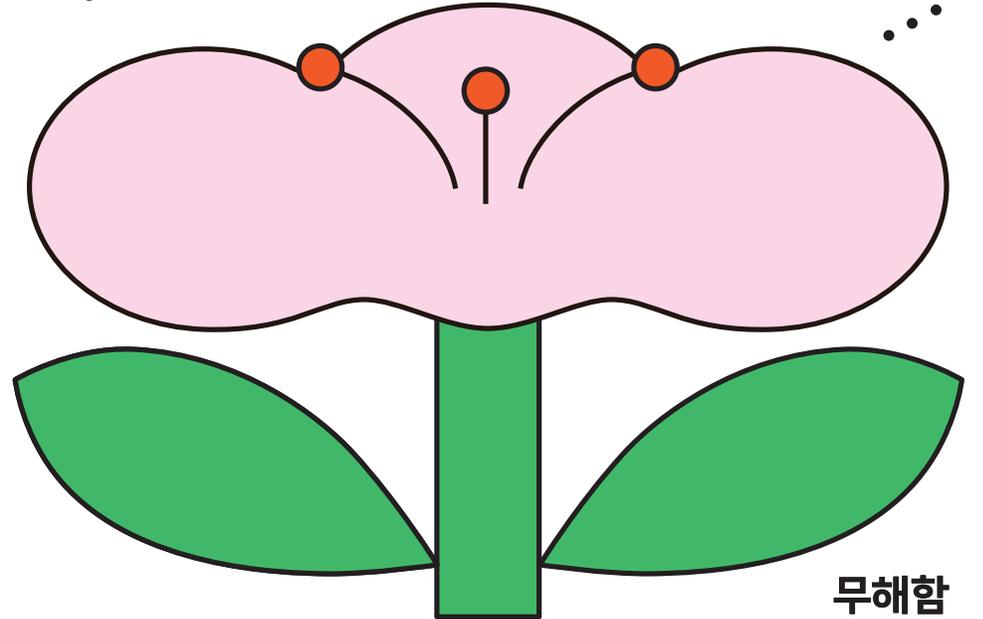
화문

Vol. 67 2025 여름과 가을 사이

무해함



화성시문화관광재단



무해함



청결한 세상

# Editor's Letter

## ‘적당한 거리’라는 미덕

유독 식물을 못 기르는 사람이 있다. 식물은 건조해 시드는 경우보다 과습으로 죽는 경우가 많아 물을 적당히 줘야 한다는데, 그 ‘적당히’가 어려운 사람들이다. 철학자 에리히 프롬은 상대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그 대상이 사랑받아야 할 방식대로 사랑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사람에게 각자 필요한 만큼의 사랑이 있듯 식물에도 필요한 만큼의 물의 양이 있다. 상대를 아끼고 신경 쓴다는 핑계로 쏟아붓는 무리한 사랑은 해가 된다. 다정도 병인 양 하여 애정의 대상을 죽이기 일쑤다.

여기저기서 ‘무해함’이라는 단어가 보인다. 말 그대로 해가 되지 않는다는 뜻인데, 생각해보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 게 호감을 사는 일보다 어렵지 않을까 싶다. 누군가에게 해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이때 필요한 것은 적당한 거리다. 내가 남과 같지 않다는 것, 내 마음이 상대에게 부담이 되거나 오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는 관계는 아름답다.

사랑과 잔소리가 동의어처럼 취급되는 세상에서, 우리는 그냥 무해한 것을 원한다. 나를 바꾸려고 하지 않는 무언가를. 그러나 상대가 나를 바꾸려 하지 않는 것처럼 나 또한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려고 노력해야 한다. 서로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이 무해한 관계의 핵심이다.

여름을 지나는 《화분》에서는 모든 존재 그대로의 사랑스러움을 가득 담았다. 한적한 마을에서 펼쳐지는 연극 예술 축제, <마주페스타>에서 뛰노는 무해한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미소가 지어질 것이다.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의 김현섭 예술감독은 사람들이 있는 그대로의 국악을 경험하고 사랑하게 되는 순간을 만들기 위해 고민한다. ‘바퀴 달린 성악가’ 이남현은 모두에게 무해한 환경을 꿈꾸며 자신만이 낼 수 있는 목소리로 무대를 채운다.

무해한 존재를 원하는 만큼 우리는 반대로 세상에 무해한 존재가 되려고 노력하기도 한다. 비건에 관심이 있다면 비건 디저트 레시피를 따라 홈베이킹에 도전해보면 어떨지. 자연 재료인 흙을 이용한 예술, 도예는 정신없는 일상에 작은 휴식이 되어줄 수 있다.

여행을 생각하고 있다면 화성시 ‘춘강스’ 코스를 따라가 보는 것도 좋겠다. 너른 서해를 따라 조금 느린 하루를 보내고 나면 바쁜 일상에서 한 발자국 떨어져 걷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 표지 이야기

적당한 거리에서 넘치지 않게 건네는 애정을 무해함의 형태라고 한다면, 그건 누군가를 향한 가장 시려 깊고 넓은 마음일지도 모른다.

그런 마음에서 활짝 피어나는 존재들을 상상하며 각자의 방향을 가지고 저마다의 색과 형태로 자란 꽃들을 시각화했다.

《화분》 표지 작가 정해지(@haegg\_)

《화분》 에디터 차예지



2025 여름과 가을 사이 Vol. 67

발행처

(재)화성시문화관광재단  
경기도 화성시 노작로 134  
T. 031-8015-8112  
hcf.or.kr

발행인

안필연

편집본부장

정지영

편집팀장

남수림

기획

원예빈

편집·디자인

플러스81 스튜디오  
T. 02-542-0810

ISSN 2671-6445

《화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발간하는 계간 문화·예술 교양지입니다.  
화성시 내외의 다양한 문화와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문화를 담은 그릇이 되고자 합니다.

《화분》에 게재된 글과 사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허락 없이 사용할 수 없으며,  
게재된 내용의 일부는 외부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 재단의 공식적인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화분》은 재생원료를 배합하여 만든  
친환경용지를 사용합니다.

# Contents

<b>INTRO</b>		당신의 무해한 존재를 자랑해주세요!	6
<b>THE 담다</b>	Focus	잔디밭에서 열리는 작은 예술 축제 [자유공간+] <마주페스타>	12
	Interview 1	같은 곳을 보며 그려낸 조선의 꿈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배우 김수하, 양희준	20
	Interview 2	좋은 사람, 좋은 우리 음악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 예술감독 김현섭	28
	Interview 3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쉬지 말고 굴러가자 성악가 이남현	34
	Talk 1	무해한 것들에 끌리는 이유	42
	Talk 2	덜 해로운 사람 홍화정의 에세이 톨	50
	People	화성 시민들은 어떻게 쉬고 있을까? 독자 참여 앙케트	56
<b>THE 가다</b>	Walk	휴과 함께하는 고요한 휴식, 도예 화성시 도자기 공방 탐방	60
	Make	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빵 생활’ 봉담읍 카페 ‘브리즈’와 함께 비건디저트 만들기	68
	Travel	화성 공평항으로 떠나는 ‘무해한’ 힐링 여행 화성시 촌캉스 코스	76
<b>THE 하다</b>	Preview	공연, 일상을 다채롭게 화성시문화관광재단 8~10월 시즌 공연 프리뷰	84
	List	내게로 와 비로소 꽃이 되다 화성시 생활문화동호회 ‘그린숲’	90
	Culture & Issue	문화소식, 문화캘린더	98
<b>Letter</b>		독자엽서	108
<b>Place</b>		배포처 및 구독 안내	110

# 당신의 무해한 존재를 사랑해 주세요!

보기만 해도 사랑이 솟아나는 화성 시민들의  
무해한 존재들을 소개한다.  
잠시나마 이들을 보고 행복을 채울 수 있길.

“링고는 집 앞에서 발견된  
유기견이에요. 임시 보호하며  
데리고 있다가 좋은 가정에  
보내주려고 했는데 정이 들어  
도저히 못 보내겠는 거예요.  
결국 저희 식구가 됐어요.  
강아지를 반려하면서 동물권과  
생명, 환경으로 제 관심이  
확장되더라고요. 강아지를 통해  
세상을 배워가고 있어요.”

## 링고



“정년퇴직 후 아들이 권해서 강아지를 키우게 됐어요. 나는 암  
수술을 했고, 아내도 허리가 안 좋아 돌보기 힘들어 계속 키울  
수 있을까 고민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에 강아지가 방 문에  
대고 발톱을 마구 긁는 거예요. 그 소리에 잠에서 깨 나가보니  
아내가 탈이 나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다가 너무 아파서  
119에 신고하려던 참이었죠. 그때부터 내가 애를 하루 세 번  
산책시키고, 아주 자식처럼 생각한다니까요. 근데 간식을 너무  
많이 줬나. 살이 좀 찼어.”

## 초코



“사람을 너무 좋아하는 리트리버 감자예요. 지금 6개월 정도 돼서 원래 이것저것 물어뜯을 때인데 애는 아무것도 물어뜯지 않고 엄청 순해요. 넓은 공원에서 산책시켜주면 좋아해요. 에너지가 넘쳐서 혼자 놀아주긴 좀 힘들거든요.”

**감자**

“나이는 한 살에서 한 살 반 정도 됐다고 알고 있어요. 시 보호소에서 입양해 저한테 온 지는 한 달 정도 됐어요. 만복이는 엄청나게 활달해요. 강아지 친구를 만나면 서너 시간을 뛰어놀아요. 남는 게 체력밖에 없는 애예요.”

**만복**



“얼굴 밑에 수염 같은 흰 털이 있는 게 베니의 매력 포인트예요. 배에도 흰 털이 있어서 넥타이를 한 것 같죠. 좋아하는 건 공놀이, 황태. 사람도 너무 좋아해서 조금만 만져주면 바로 배를 까고 누워요.”

**베니**



“반려동물을 키워볼까 고민하던 차에 파양 당한 강아지를 만났어요. 지금은 키운 지 10년 정도 됐어요. 얼굴이 웃는 상이죠? 사모예드라 덩치가 커서 무서울 수도 있는데 귀여운 얼굴 덕분인지 많이들 예뻐해 주시는 것 같아요.”

### 봉구

“우리 장군은 9살이고요. 보시다시피 너무 얌전해요. 장군이 사랑을 하자면… 말을 할 줄 알아요! 제가 질문을 던지면 아우우- 하면서 대답해요. ‘말대꾸하는 강아지’ 영상으로 알려진 13만 유튜브버랍니다.”

### 장군



# 잔디밭에서 열리는 작은 예술 축제

[자유공간+] <마주페스타>

예술을 처음 접하는 순간은 중요하다. 처음으로 간 전시, 처음으로 본 공연, 처음 만들어 본 작품이 예술에 대한 이미지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7월의 어느 화창한 주말, 화성시 우정읍 민들레연극마을을 찾은 아이들은 색다른 예술을 처음 경험했다. 뛰어놀고, 만지고, 가까이서 느끼는 예술이었다.

글 차예지 사진 이대원(싸우나스튜디오)





민들레연극마을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2025년 일상 예술활동 지원사업 [자유공간+]의 일환으로 운영되는 작은 예술 마을이다. 전통을 바탕으로 한 창작극을 선보이는 극단 민들레가 아이들을 위한 연극, 극 연계 체험 활동을 진행한다.

극단 민들레의 운영 이념인 소파 방정환의 어린이선언을 들여다보자. 1923년 어린이선언 ‘어른에게 드리는 글’에 따르면 방정환은 어린이를 늘 가까이하고 자주 이야기를 해줄 것, 산보(산책)와 원족(소풍)을 가끔 시켜줄 것, 어린이들이 모여 놀 만한 놀이터나 기관을 지어줄 것을 강조했다.

민들레연극마을의 <마주페스타>는 어린이의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야기를 연극으로 들려주고, 정신없는 도시를 벗어나 한적한 마을로 떠나는 소풍을 제안한다. 이곳은 알록달록한 색과 시끄러운 음악으로 가득한 어린이용 실내공간이 아닌, 풀벌레 소리가 들릴 만큼 조용하고 하늘을 지붕 삼아 누울 수 있는 곳이다.

## 생애 첫 연극이 될 수도 있기에

“우리 오늘 영화 보는 거예요?”  
“영화는 스크린이 있잖아. 이걸 스크린 없이 보는 ‘연극’이라는 거야.”

오늘 <마주페스타>를 찾은 아이 중에는 연극을 처음 경험하는 아이도 있는 듯했다. 줄을 지어 공연장 안으로 들어온 아이들의 눈은, 어둠컴컴한 실내에서도 호기심으로 빛나고 있었다. 대형 스크린의 매끈하고 화려한 영상미에 더 익숙할 이들이지만 소박한 공연장은 연극 속 이야기에 더 깊이 빠져들 법했다.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극의 연출과 공연을 맡고 있는 극단 민들레의 송인현 대표가 나타났다. 연극을 처음 보는 아이들도 많기에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일부터 시작한다. 아이들의 세상에는 처음 겪어보는 일투성이다. 지금부터 무엇을 할 건지, 어떻게 느끼면 좋은지 알려주는 일은 또 다른 세계로의 안내 지도와 같다.

민들레연극마을에서는 <꼬마공룡 플라톱스>, <남복이 차복이>, <까만 닭> 등 창작극이 펼쳐진다. 그중 <까만 닭>은 마을 주변에서 일어났던 이야기를 토대로 구성한 연극이다. 노란 병아리들 사이 혼자만 까맣게 태어난 주인공은 형제들 사이에서 소외감을 느낀다. 그러다 누군가가 유기한 짓지 못하는 개, 우유를 많이 생산하기 위한 주사를 맞고 이상행동을 하는 젓소와 이야기를 나누며 위로받게 된다. 연극은 송인현 대표가 각 캐릭터의 모형을 들고 연기하며 진행된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분무기에 색을 칠해 닭 모형을 만들고, 신발에 털목도리를 붙여 개를 표현했다. 얼룩무늬를 그려 넣고 경적 두 개를 눈처럼 붙인 자전거는 젓소다.

송 대표가 큰 소리로 “꼬끼오!”를 외치며 극이 시작되었다. “닭이다! 저거 치킨 만들어버리는 거 아니야?” 한 아이의 순수하지만 씩씩한 질문이 들렸다. 어린이들에게 닭은 생명체보단 식재료에 더 가까운 것. 그러나 극이 진행될수록 아이들은 까만 병아리의 이야기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다. 어느새 객석 바닥으로 내려와 무대에 집중하고, 극 내내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까만 닭>은 도시와 자본주의 속에서 생태계의 자연스러움과 다양성이 사라지고, 자연마저도 인간 중심적으로 이용하려 하는 세태를 담은 이야기다.

아직 어리기에 극의 내용을 100% 이해하지 못할 수 있다. 하지만 아이들이 아스팔트 바닥이 아닌 마을의 잔디밭을 뛰어놀며, 풀 속에 사는 곤충들을 관찰하다 보면 무언가 다른 세계가 있다는 것을 조금은 느끼지 않을까.

### 예술의 확장, 감성을 자극하다

이후에는 극 연계 활동인 만들기 체험과 전통놀이 체험이 이어졌다. 연극의 소품이 일상용품을 재활용해 만든 만큼 아이들도 일상용품으로 자기만의 캐릭터를 만들었다. 채소를 활용한 소품이 등장하는 극을 선보일 때는 애호박 등 채소로 만들기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고.

캐릭터에 이름을 지어주고 돌려 모여 소개하는 시간도 가졌다. 각자 만든 물건을 소개하며 거기에 이야기를 부여하는 과정은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돕는다.

“엘리는 우주까지 날아갈 거예요. 뒤에 붙은 빨간 종이 불이라서 로켓처럼 날아갈 수 있어요.”

“리본은 발레를 좋아하고, 건강하게 잘 먹고 쑥쑥 크는 게 소원이예요.”

“애는 외계인이고 사람들이랑 놀고 싶어 해요.”

자유자재로 늘어났다 줄어드는 파이프를 이용한 상상 수업도 진행됐다. 파이프를 들고 특정 상황을 연기해 정답을 유추해보는 수업인데, 한 아이는 파이프를 길게 연결해 구불구불 흔들었고(정답은 ‘뱀’이었다) 다른 아이는 파이프를 손에 쥐고 바닥으로 늘어뜨리곤 허리를 구부정하게 걸었다(정답은 ‘할머니’). 연극의 기본인 표현력을 기를 수 있는 수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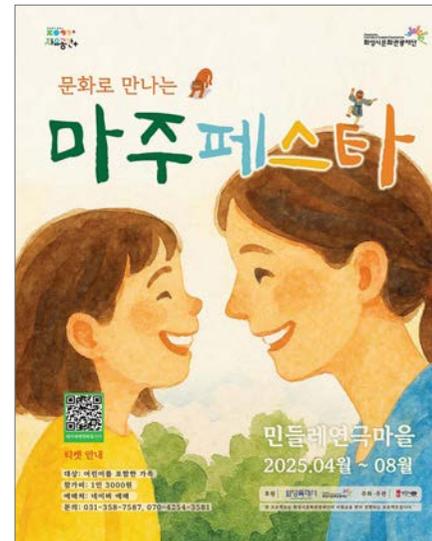
### 모두가 웃는 공간, 민들레연극마을

민들레연극마을은 넓은 잔디밭과 극장,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실내와 야외무대로 이루어져 있다. 야외 무대로 자리를 옮긴 아이들에게 기다란 흰 천이 쥐어졌다. 전통춤을 출 때 손목에 끼우는 천인 '한삼'이다. 팔을 움직이는데로 공중에 한삼이 살랑살랑 날리며 춤을 한층 돋보이게 한다.

“아까 연극에서 닭을 표현할 때 어떻게 했어요? 한쪽 다리를 이렇게 들었죠?”

연극 속 움직임은 전통춤에 녹여낸 수업이다. 아이들은 강사를 따라 다리를 들며 한삼을 낀 팔을 흔들고 수업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였다.

“강아지는 어떻게 했어요? 매미는요?”



기타 연주 소리와 함께 연극에 나왔던 캐릭터들이 되짚어보며 그들의 움직임을 춤으로 승화시킨다. 나무 그늘 아래 야외무대에서 아이들은 신나게 뛰며 춤을 쳤다. 아이들은 뛰면 웃는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환히 웃으며 춤을 추는 아이들을 보니 더위가 가시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이날은 지역 주민들로 이루어진 공연단이 난타 공연을 선보이기도 했다. 의상까지 멋지게 갖춰 입은 주민들이 신나는 노래에 맞춰 북을 두드렸다. 한여름의 열정을 담은 멋진 호흡이었다. 주민들은 아이들에게 공간만 내어주는 것이 아니라, <마주페스타>를 함께 즐기고 있었다.

우정을 주민들에게는 마을잔치 같은 하루를, 아이들에게는 예술을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특별한 체험을 선사하는 민들레연극마을. 모두에게 무해한 예술의 현장으로 여러분을 초대한다.



화성시 곳곳에서 만나는  
일상예술활동 프로젝트  
[자유공간+]



# 같은 곳을 바라보며 그려낸 조선의 꿈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배우 김수하, 양희준

서울에대 졸업 작품으로 첫발을 내디딘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이 올해 다섯 번째 시즌으로 다시 관객을 만난다. 이 작품은 '시조'가 국가 이념인 가상의 조선에서 시조가 금지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다룬다. 백성들이 시조를 통해 자유를 찾아가는 여정을 신선한 상상력과 강렬한 메시지로 그려내며 한국 창작 뮤지컬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다. 이들은 9월 26일부터 3일간 화성시를 찾을 예정이다. 초연부터 변함없이 무대를 지켜온 양희준과 김수하, 두 배우가 함께 완성해 온 조선의 꿈과 그 여정을 들어본다.

글 정은숙 사진 이대원(싸우나스튜디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이 기존 뮤지컬과 다른 점 그리고 관객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초연부터 현재까지 작품에 참여하면서 느낀 변화나 성장 그리고 작품에 대한 해석이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희준\_ 이 작품은 천방지축인 '단'이 골빈당과 '진'을 만나 성장하는 과정을 그립니다. 시조가 금지된 가상의 조선에서 '자유를 향한 작은 외침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메시지를 담았죠.

김수하\_ 여기서 시조는 백성들의 자유와 표현에 대한 갈망을 상징하는 존재로 설정되었습니다. 시조의 금지는 곧 백성들의 목소리가 억눌린 현실을 드러내죠.

김수하\_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은 전통 시조와 힙합을 절묘하게 융합한 무대가 가장 큰 특징입니다.

양희준\_ 일반적인 뮤지컬이 한 가지 스타일의 안무로 통일되는 것과 달리 저희 작품에서는 팝핀, 현대무용, 스트리트 댄스 등 다양한 춤 장르가 어우러집니다. 각 배우가 자신의 개성과 장점을 살린 춤으로 캐릭터를 표현하죠. 또 무대와 객석의 경계가 허물어져 배우들이 객석으로 내려가 관객과 직접 호흡하며 관객이 마치 조선 거리의 백성이 된 듯한 생생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김수하\_ 저에게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은 매우 특별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으로 처음 한국 무대에 오르게 되었고 특히 한국어로 공연한다는 사실만으로도 무척 설레고 행복했거든요. 이전에는 영어와 일본어로 무대에 서면서 언어적 어려움도 많았지만, 이제는 가족과 친구들 앞에서 제 모국어로 연기할 수 있다는 점이 큰 기쁨이죠. 시간이 지나면서 배우로서 책임감도 커지고 어느새 후배들도 생기자 보니 이 작품을 잘 이어가고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더욱 커졌어요.

양희준\_ 예전에는 단이라는 캐릭터를 연구하고 제 연기에만 몰두했다면 이제는 무대 위 모든 배우와 호흡하며 단이라는 인물을 더 깊이 있게 표현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각자 맡은 캐릭터와 자신의 삶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양희준\_ 단이는 걸으면 천방지축 말쑥꾸러기처럼 보이지만 내면에는 아픔과 외로움을 감추고 있는 입체적 인물입니다. 그런 감정을 숨기려고 일부러 더 밝고 씩씩하게 행동하죠. 저와 단이의 공통점은 '자유를 갈망한다'라는 점이에요. 저는 단이처럼 자유를 찾아 행동으로 옮기지는 못하지만, 자유를 바라는 마음만큼은 단이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김수하\_진은 양반집 자제로 조선 시대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진에게는 자신만의 정의와 꿈이 있어서 백성과 조선을 더 나은 세상으로 만들고 싶다는 마음에 자신을 희생하기도 하죠. 저 역시 부당함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하고 직접 나서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 부분이 진과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진이라는 캐릭터와 저의 삶이 닮았다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이 작품은 두 분께 신인상을 안겨준 만큼 더욱 특별할 것 같아요.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은 내게 ○○○이다"라고 표현한다면 어떤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릴까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김수하\_저는 친정엄마요! 사실 친정엄마라는 단어에는 단순한 사랑뿐만 아니라 책임감과 잔소리 때로는 희생까지 다양한 감정이 함께 담겨 있잖아요. 진이 백성들을 위해 희생하듯 저 역시 이 작품과 역할을 지키기 위해 때로는 희생하고 사랑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끼며 무대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저에게 늘 따뜻하고 든든하면서도 복합적인 감정이 오가는 친정엄마 같은 의미로 남아있습니다.

양희준\_저는 동지로 표현하고 싶어요. 동지는 작은 가지들을 하나 하나 모아 차곡차곡 쌓아 올린 소중한 공간이죠. 비록 화려하거나 크진 않지만, 그 안에서 편안하게 숨 쉴 수 있고 나만의 호흡을 찾을 수 있습니다. 저에게 이 작품은 언제나 돌아오고 싶은 안정감과 소속감을 주는 동지 같은 무대입니다.

**이 작품을 통해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이나 배운 점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희준\_<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은 제가 꿈꾸는 것을 현실로 만들어 준 작품입니다. 처음에는 막내로 시작했는데 어느새 선배가 되어 후배들이 이 무대에서 첫걸음을 내딛는 모습을 지켜보게 됐어요. 그럴 때마다 예전의 제 모습이 떠오르고 자연스럽게 후배들을 더 챙기게 되고 모두가 좋은 환경에서 멋진 공연을 만들어 가고 싶다는 마음이 커졌습니다. 이 작품을 통해 동료들과 함께 성장하는 기쁨과 서로를 세심하게 배려하는 마음을 배운 것 같습니다.

김수하\_저는 관객분들의 변화를 가장 크게 느꼈던 것 같아요. 6년 전 처음 공연을 올렸을 때는 관객분들이 신선함과 낯섦을 동시에 느꼈거든요. 그러다 차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분이 <스웨그에

이지: 외쳐, 조선!>을 기다려 주시고, 저희를 응원해 주시는 모습을 보게 됐어요.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다섯 번 시즌 공연에 참여했는데 그때마다 관객들이 "이번에도 돌아와서 너무 좋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정말 뿌듯하고 큰 힘이 됩니다.

**오랜 기간 함께한 동료 배우로서 무대 위에서 두 분의 케미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상대방 배우가 전과 다르게 변화하거나 성장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김수하\_사실 이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을 함께 한 적이 있는데, 그때도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에서처럼 무대 위에서 편안함과 안정감을 느꼈어요. 이걸 단순히 작품 때문이 아니라, 상대 배우가 주는 연기적인 힘과 따뜻한 에너지 덕분이라고 생각해요. 처음엔 오빠가 가사도 자주 틀리고 낯을 많이 가려서 인터뷰 때 제가 통역을 해주기도 했었거든요(웃음). 하지만 지금은 무대에서나 인터뷰할 때도 긴장하지 않고 멋지게 본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양희준\_수하랑은 무대 위에서 서로의 호흡이 자연스럽게 맞는다는 것을 확실히 느꼈어요. 초연 때부터 오랜 시간 함께하다 보니 작은 실수나 변수가 생겨도 서로 눈빛만으로 알 수 있거든요. 수하는 처음이나 지금이나 늘 한결같은 무대 위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이번에도 정말 대박이었다"라고 진심으로 칭찬하게 돼요.

**공연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장면이나 넘버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그 이유도 함께 말씀해 주세요.**

김수하\_공연의 마지막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태산을 넘어 세상을 향해 외쳐 조선"이라는 가사는 해가 갈수록 깊은 울림으로 다가오고 "태산이 높다하되 하늘 아래 뫼이로다"라는 가사는 아무리 큰 산도 결국 하늘 아래에 있다는 메시지가 용기와 자긍심을 줍니다. 이 마지막 곡을 부를 때면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자부심과 희열을 느낍니다.

양희준\_저는 반대로 공연의 시작을 알리는 첫 곡 '시조의 나라' 장면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이 장면에서는 학창 시절 졸업 작품 쇼케이스로 처음 무대에 올랐던 순간부터 지금까지 여러 시즌을 함께 만들어 온 과정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특히 백성 역을 맡은 배우들의 열정과 땀이 느껴져서 무대에 설 때마다 연습 과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 울컥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 장면은 저에게 늘 고마움과 대견함 그리고 특별한 감동을 안겨줍니다.

무대 위에서 가장 주의 깊게 신경 쓴 부분이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희준\_ 연습한 대로 무대 위에서 역할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관객이 공연을 보며 웃거나 슬퍼하는 건 각자의 몫이고 배우가 감정을 과하게 표현하거나 슬픔을 강요하면 오히려 부담될 수 있다고 봅니다. 무대에서 감정을 지나치게 드러내기보다는 관객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여백을 두고 연기하려고 노력해요.  
 김수하\_ 저 역시 무대에서 관객을 의식하기보다는 지금 이 장면이 실제 상황이라고 믿으며 진정성 있게 연기하려고 합니다. 진심으로 느껴지지 않는 감정이나 동작은 억지로 표현하지 않으려 하고 보여주기식 연기는 최대한 지양합니다. 관객을 지나치게 의식하면 연기가 인위적으로 흐를 수 있기 때문에 극 중 상황에 몰입해 자연스럽게 진실한 무대를 만들고자 합니다.



앞으로 배우로서 도전하고 싶은 목표나 역할 또는 꿈꾸는 무대가 있다면 무엇인가요?

양희준\_ 사실 배우로서 항상 하고 싶은 것만 할 수는 없다고들 하지만 제 경력이 길지 않아서인지 지금까지는 정말 하고 싶은 작품만 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가능하다면 제가 진심으로 원하는 작품과 역할에 도전하며 연기하고 싶어요. 그게 저의 가장 큰 꿈이자 목표입니다.  
 김수하\_ 저 역시 예전에는 이것도 해보고 싶고 저것도 해보고 싶다는 욕심이 많았는데 경력이 쌓이면서 현실을 받아들이게 됐어요. 아무리 원해도 내 것이 아니면 오지 않고 반대로 원하지 않아도 내 것이 라면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집착하지 않고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한 뒤 결과는 관객과 제작진의 선택에 맡기려 합니다. 앞으로도 마음을 내려놓고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배우가 되고 싶습니다.

이번 호 《화분》의 주제는 '무해함'입니다. 무대 위나 일상에서 무해함을 느꼈던 소중한 순간 혹은 나에게 무해함을 주는 대상이 있다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김수하\_ 양상블 배우들이 진심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장면이 떠올라요. 그 장면이 무대 밖에서 바라보는데 꾸밈없는 날것 그대로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져 저도 모르게 깊이 빠져들었거든요. 특히 이번 시즌에 처음 합류한 배우들이 보여준 신선하고 진솔한 에너지가 저에게 큰 감동과 고마움으로 남았어요. 그 순간만큼은 무대 위와 밖 모두가 따뜻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양희준\_ 저는 공연이 끝난 뒤 커튼콜에서 객석을 바라보는 순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때 비로소 관객 한 분 한 분의 존재가 온전히 느껴지는데 더운 날씨나 쿨한 날씨에도 공연장을 찾아주시는 모든 분의 발걸음이 너무 소중하고 감사하게 다가옵니다. 박수와 웃음 그리고 눈물까지 모두가 무해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라고나 할까요? 일상에서는 비 오는 날을 좋아해요. 어둑어둑하고 촉촉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도 편안해지고 그런 순간이 저에게는 무해함을 주는 소중한 시간인 것 같아요.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공연 정보

일시 9. 26.(금) 19:30 / 9. 27.(토) 14:00, 18:30 / 9. 28.(일) 14: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VIP석 9만 원 / R석 8만 원 / S석 7만 원 / A석 5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 좋은 사람, 좋은 우리 음악

화성시 예술단 국악단 예술감독 김현섭

우리 음악, 국악은 멀고도 가까운 존재다. 지켜야 한다지만 정작 잘 알지는 못하는 존재.  
그런 이들에게 국악을 접하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생긴다면 많은 게 달라질지 모른다.  
어느 찰나의 경험으로 국악을 사랑하게 되어 이제는 국악을 짓는 사람이 된 김현섭 감독처럼.  
글 차예지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장소 협조 카페사월



음악을 시작하게 된 계기는  
무엇이었는지, 그리고 왜  
국악이었는지 궁금해요.

어릴 때 앞집 누나와 친하게 지냈었는데, 우연히 그 누나가 동요 '나비  
야'를 피아노로 치는 걸 듣게 됐어요. 그때부터 음악을 찾아 듣고, 악  
보를 찾아 연주하기 시작했죠. 초등학교 때 서울시 영재로 발탁되면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울 기회를 갖게 됐습니다. 피아노 콩쿠르에서 여  
러 번 수상하면서 피아노를 전공하고 싶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꿈을 접  
어야 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음악 선생님의 권유로 피아노과 진  
학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  
악을 듣게 됐어요. 생전 처음 들어보는 음악인데 그 음악적 호흡에 꽂  
힌 거예요. 그 곡이 슬기동의 '그 저녁 무렵부터 새벽이 오기까지'였어  
요. 새로운 음색과의 만남 이후로 진로를 바꾸게 됐어요. 나만의 음악  
세계를 구축하고 싶다는 마음과, 라디오를 통해 접한 국악기의 진한  
소리. 그 둘이 만나 국악 작곡을 시작하게 됐어요. 이는 저한테 너무나  
신선하고 행복한 충격이었습니다.

원래 하던 것에서 벗어난 색다른  
도전이였겠네요. 국악을 작곡하면서  
어려움에 부딪친 적은 없었나요?

작곡가로서 또 예술가로서 살며 마주하는 매 순간이 새롭고 쉽지 않  
아요. 작품 속에서 힘들어하지만 동시에 행복해하는 제 모습을 발견해  
요. 예술은 완전함을 추구하지만 불완전으로 끝나요. 그래도 모든 경  
험은 마음이 담긴 소리로 발휘되죠. 그렇기에 작곡가의 길을 가는 이  
들에게 저는 '타인의 인정이 아닌 직접 부딪히며 배운 모든 소리는 나  
의 '소리 언어'가 된다'고 말해요.

고민을 담아 곡을 만드는 데 비해,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국악에 관심이 없거나,  
혹은 우리 것이니까 반대로 이미  
너무 잘 안다고 생각하죠.

저는 이런 비유를 해요. 우리가 어릴 때는 나물 반찬을 잘 먹지 않잖아  
요. 어른들은 이게 얼마나 귀한 건 줄 아느냐 하지만 어린 저한테는 그  
게 강요 같았거든요. 지금은 나물 반찬 없어서 못 먹어요. 그러면 분명  
어떤 계기가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물을 다시 먹게 된 특별한 경험  
이. 강요가 아닌 경험을 제공해주면 자연스럽게 관심이 생겨요.  
국악에 관심이 없고 재미없다고 말하는 사람에게, 그럼 이걸 없애도  
괜찮나요? 하고 물으면 그건 아니라고 해요. 우리의 전통이니까. 그럼  
들으시겠냐고 물으면 그건 또 싫대요. 하하.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국악  
에 관심을 가질 단 한 번의 계기를 만들어주는 게 예술가들의 숙명이  
겠죠. 그렇기에 많은 예술적 시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 림 김이나 송소희와 같이,  
국악적 요소를 재해석한 음악가들이  
주목받는 모습도 보입니다. 사람들이  
이러한 음악에 열광하는 경향을  
어떻게 바라보시나요?

21세기 들어 예술의 장르나 경계를 구분 짓는 벽은 모두 허물어졌다  
고 생각해요. 한국에서 방금 업로드한 음악을 지구 반대편에서도 들을  
수 있는 세상이기니까요. 예술이라는 언어를 가지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자 하는 시도를 누구도 나쁘게 말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으  
로 저는 칠판 굵은 소리를 좋아하거든요? 잘 때 자장가처럼 틀어두고  
잘 정도예요. 이처럼 예술은 즐기는 사람마다 다르게 느끼는 것이고  
거기 진심이 담겼다면 모든 예술은 이야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최연소 국악단 예술감독으로  
부임하셨는데요. 그간 어떠셨어요?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려면 연주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  
고 임해야 하는지가 중요해요. 단원들과의 호흡도 중요하고요. 인터뷰  
전에 식사를 하고 왔는데, 단원들과 모여서 커다란 양푼에 비빔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저희 분위기가 정말 좋거든요.  
감독은 갯벌 속의 진주 같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내가 빛나려고 하지  
않고, 함께 마음과 소리를 나누는 단원들을 빛나게 해주는 게 제 역할  
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게 좋은 관계 속에서 좋은 음악도 나오겠네요. 공연을 준비 중이시죠?

본인만의 음악 철학이나, 제자들을 가르칠 때 꼭 전달하고자 하는 게 있나요?

8월 14일 <화음(華音) I\_화성을 노래하다>를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9월 17일에는 <화음(華音) II\_화성을 연주하다>를 준비 중입니다. 8월 공연은 국악의 3대 성악 형태인 민요, 판소리, 정가를 보여줄 수 있게 기획했습니다. 9월 17일 공연에서는 국악계에 계신 원로 작곡가들을 모시고 국악의 정수를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 전통 음악의 무궁무진한 가능성과 묘미를 선사하고 싶습니다.

제 은사님께서 저에게 '좋은 음악을 하려면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사람이라는 게 무엇인지에 대해선 다들 생각이 다르겠지만 저는 본인에게 솔직한 것이 좋은 사람이 되는 첫 번째 조건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음악으로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타인의 인정을 바라는 예술을 하지 말고 자아 성찰을 통한 나만의 소리 언어를 찾으라고 얘기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 알 때, 가장 나은 음악이 나올 것이고 그것만큼 본인에게 진실한 음악은 없을 거라 확신합니다.

제 작곡 발표회 제목이 '헌섭하다'예요. 처음에는 주변에서 자기애가 너무 강한 거 아니냐며 우스갯소리를 했는데, 이제는 저를 대표하는 고유명사가 됐어요. 가장 나은 음악은 나에게 진실한 음악이라고 생각해요. 더불어 예술이란 시대를 반영했을 때 생명력을 얻는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시대란 사회적 의미와 동시에 예술가 본인의 시간이기도 합니다. 자신만의 시공간 속에서 가장 솔직한 나를 담은 예술이야말로 생명력 짙은 예술이라 생각합니다.



# 노래가 멈추지 않도록, 쉬지 말고 굴러가자

성악가 이남현

동근 것에는 무한의 속성이 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무한 동력처럼,  
한번 굴러가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힘. 그러니 동근 바퀴를 두 개나 가진 이남현은  
앞을 향해 나아가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글 차예지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tvN 드라마 <미지의 서울>에는 이런 대사가 나온다. “어제는 지났고, 내일은 멀었고, 오늘은 아직 모른다.” 내게 벌어진 일을 받아들이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최선의 것들로 채워가자는 뜻일 거다.

성악가·공연예술학 박사 이남현은 예상치 못한 사고로 전신 마비를 얻었지만, 그가 할 수 있는 것을 했다. 노래를 연습하고 음악을 계속해서 공부했다. 그리고 수많은 무대에 올라 자신을 증명했다. 그가 이뤄낸 것들이 허리 양쪽에 달린 커다란 바퀴를 따라 멋진 궤적을 그려낸 것이다.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멋진 별명이 있던데요. 스스로 붙인 건가요?**

활동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신인 시절 공연에서, 사회자가 절 소개할 때 “다음 무대는 장애인 성악가의 무대입니다”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번엔 미리 사회자를 찾아 그냥 성악가로 소개해달라 부탁했는데요. 이번엔 ‘휠체어 성악가’라고 절 소개하는 거예요. 근데 휠체어도 장애를 상징하는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장애, 비장애 구분 없이 대중의 호기심을 자극하면서도 친근한 나만의 정체성이 생길 때까지 무대에 서면 안 되겠다고 생각하고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저를 보시면 휠체어의 큰 바퀴가 눈에 딱 들어오죠? 이걸 보고 ‘내가 휠체어에 올라타 의지하는 게 아니라 바퀴가 나에게 와서 달렸구나’하는 생각이 번쩍 들었어요. 그래서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수식어를 붙이게 됐습니다. 공연할 때, 바퀴 달린 성악가라는 소개를 듣고 관객들의 몸이 앞으로 기울어지며 관심을 보이면 수식어를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관점의 차이네요. 휠체어의 도움을 받게 아닌, 바퀴가 내게 와서 달렸다고 생각하는 거요. 이러한 시각이 사고 이후의 시간을 지나오는 데도 도움이 됐을까요?**

사람이 큰일을 당하면 감정 수용 단계를 겪는다고 하죠. 저 역시 사고로 전신 마비 판정을 받고 후천적 중증장애인이 된 현실을 받아들이는 데 감정 수용의 단계를 겪었어요. 수술하면 회복될 거라는 부정을 시작으로 분노하고 자책도 하며 다시 일어서게만 해달라고도 하고요. 모든 게 부질없구나 하는 우울의 시기를 길게 겪은 후 수용 단계에 접어들니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새롭게 시작하게 되더라고요. ‘내가 죽을 수도 있었는데, 안 죽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내가 이 땅에 남아서 해야 할 사명이 아직 남았나 보다. 그게 뭘까. 인생의 과제를 완성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종합병원에 검사받으러 갈 때, 어린이 병동에 있는 아이들을 볼 기회가 있었는데 선천성 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음악을 들을 때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세상 어떤 약보다 음악이 효과가 좋구나 싶었고,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가 되고자 병원 로비에서 공연하는 걸 목표로 삼았어요. 물론 연습이 쉽지는 않았습시다. 제 폐활량은 사고 전의 20~30%만 살아있어요. 복근, 하지 등 어깨 아래로는 모든 신경과 기능이 마비돼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노래를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미지 트레이닝 하듯 연습했죠. 게다가 장애가 있는 사람에게 음악을 가르쳐 줄 분을 찾는 것도 쉽지 않았고요. 맨땅에 헤딩하는 심정이었는데요.

**볼모지의 개척자가 된 거네요. 병원 복도에서 시작해 여러 무대에 진출하셨죠. 기억에 남는 공연이 있다면요?**

**해외 공연 경험도 많으신데요. 장애인으로서 활동하기에 외국의 환경과 우리나라의 환경이 다르게 느껴지는 지점도 있나요?**

오히려 그 경험으로 저처럼 음악을 배우고 싶은데 못 하는 장애인들도 있겠구나 생각하게 되고, 제가 남에게 가르쳐 주는 길잡이가 돼야겠다 마음먹기도 했죠. 그래서 공부하고 활동하다 보니 환경이나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후배들을 위해 내가 도전해 길을 넓혀야겠구나 생각해서 박사까지 하게 됐어요.

사실 저에게 큰 무대, 작은 무대의 구분은 없습니다. 제가 필요한 곳에서 저의 메시지를 나눌 수 있다면 어느 곳이든 소중합니다. 그래도 그 중에 하나를 말해보자면 뉴욕 UN 본부의 초청을 받아 갔던 공연이 기억에 남아요. 전 세계 대사들이 모인 자리에서 공연하고 기립박수를 받았어요. 누구나 꿈꾸지만 아무나 서지 못하는 카네기홀 대공연장에 섰다는 게 평생 기억에 남을 일이지요.

저에게 해외 공연 일정이 생긴 것도 기적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나라를 다녀보면 예술가를 대하는 마인드가 좀 다르다고 느끼는데, 외국은 장애의 여부를 떠나 예술가의 개성을 존중하고 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장애의 원인을 개인이 아닌 사회적 입장에서 보는 시각이 있어요. 일상에서는 늘 장애인과 눈높이를 맞춰 대하고, 약자로 바라보기 보단 이해를 바탕으로 공존하는 것 같았어요.

한국에는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이 법정 의무교육으로 지정돼 있지만, 아직 장애의 원인을 개인에 두는 시각이 많아 시설이나 환경 등 사회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걸 뭐가 좋고 나쁘고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더 많은 활동을 하고 일상에서 장애인을 많이 만나면 격차가 줄고 사회가 변화하리라 생각해요.

장애인과 함께 지내는 환경이 정말 중요하죠. 사실 오늘 인터뷰를 위한 외부 장소를 섭외하려고 했었는데, 휠체어로 갈 수 있는 적당한 곳을 찾기가 어려웠어요.

지역의 문화재단이나, 공공의 영역에서 장애 예술인을 위해 해결 수 있는 지원이나 정책 등이 있을 텐데요. 정말 필요한 지원은 어떤 걸까요?

맞아요. 그 이야기 꼭 써주세요. 누구나 경험하지 못한 건 모르잖아요. 이런 것을 복지 개념보다 문화 개념으로 확장해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전 세계에서 열풍이고, 이에 지원이 확장되는 가운데 장애 예술도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뭘 해야 할까 고민해보자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문화 복지가 강화될 수밖에 없으니까요.

제가 지금은 무대에 서지만 언젠가는 무대 뒤에서 후배들을 서포트하는 입장이 될 거잖아요? 그때도 불편함 없이 활동할 수 있을까를 생각해보거든요. 장애 예술가가 일할 수 있는 환경, 시설 등 모든 면에서요. 모두가 이런 고민을 함께한다면 더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요.

장애예술인 지원법이 생기면서 많은 부분에서 권리가 생겼어요. 저도 장애 당사자로서 국회에 가서 발표도 하고 포럼에도 참여했었죠. 중요한 건 법이나 정책의 수혜를 받는 장애인인 단 한 명뿐이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수요가 많아야만 집행하는 게 아니라 미리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거죠. 화성시도 장애 예술인 지원 사업이 없었다가 작년엔 생겼거든요. 그때 제가 타 도시와 비교하며 건의도 많이 하고 협의체를 통해서 장애 예술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많이 냈어요. 지금은 관심이 적더라도, 지원 제도가 있으면 분명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또 찾아올 거라고 얘기했죠. 그래서인지 올해 경쟁률은 좀 높아졌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장애예술인지원센터의 부재로 화성시 장애 예술인이 많이 떠났어요. 직속 기관이나 전담부서가 있어야 진행이 수월할 거라고 생각해요.

또, BF(Barrier Free)인증이라는 게 있어요. 장애인, 노인 등 모든 국민이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인증하는 제도예요. 근데 이걸 문화 향유자 입장에서만 생각하는데 저처럼 장애 예술 당사자들이 있잖아요. 연습실, 백스테이지, 무대 등 전반적인 시설에 이런 인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만일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서 앞장선다면 너무 좋은 모범 사례가 되겠죠. 재단이 관광을 함께 다루는 기관이 된 만큼, 공연장이든 관광지든 지역사회가 무장애 환경이 된다면 정말 좋겠어요. 타 도시에도 무장애 관광지가 있으나 제 경험으로는 무장애의 정의에서 벗어나 있더라고요. 화성시가 특례시인만큼 무장애 관광을 정확히 정의하고 효과적으로 시행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도시가 되면 좋겠습니다.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장애예술특화지원부문에 선정돼 도움을 받으신 게 있다면 어떤 게 있나요?**

공연이라는 게 대관료, 홍보 비용, 출연자 섭외, 연습에 들어가는 비용 등 다양한 걸 고려해야 하는 일이거든요. 그에 대한 부담이 상당한데 재단의 지원으로 일정 부분 해소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재단에서 홍보도 도와주고, 시민들이 장애 예술가 공연을 볼 수 있게 독려도 해주셔서 많은 도움이 돼요.

그 덕에 9월 28일에 반석아트홀에서 <더 브릿지 콘서트(THE BRIDGE CONCERT)>로 찾아뵐 예정입니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무대이니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참석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무료 공연이고 선착순 입장이니 부담 없이 와서 봐주세요.

**성악가로서 세상에 남기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요?**

제가 성악가가 된다고 할 때 많은 분이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더 나아가 전공을 한다니, 안되는 걸 왜 하나며 축하보다 질타를 많이 받기도 했고요. 제 슬로건이 '몸에는 장애가 있어도 꿈에는 장애가 없다'입니다. 사실 비장애인도 마음에 장애가 있거나 힘든 시기를 지나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말을 '환경에 장애가 있어도 꿈에는 장애가 없다'로 바꿔 말하기도 해요. 그 누구도 장애 또는 환경 때문에 하고 싶은 일을 못 하는 상황은 없었으면 좋겠어요. 누구에게나 기회가 주어지는 사회가 되길 바라요. 제 활동이 도전과 희망의 에너지를 전하는 만큼 장애 예술가들이 더 많아지고, 전공자들이 늘고, 세계에 K-장애 문화가 확산됐으면 하고요. 제2의 이남현, 제3의 이남현이 늘어갔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화분》 독자들에게 성악곡을 하나 추천해주실 수 있나요?**

의미가 있는 곡도, 좋아하는 곡도 많은데요. 한 곡을 추천하자면 이탈리아 가곡인 '나를 잊지 말아요(Non Ti Scordar Di Me)'가 생각나네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나를 잊지 말라 노래하는 내용이지만, 어떻게 보면 장애 예술가들의 상황에 빗대어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주위에 흔하게 보이지만 없는 건 아니라는, 어딘가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으니 잊지 말아 달라는 의미를 담아 전해드리고 싶네요.



이남현이 부른 '나를 잊지 말아요(Non Ti Scordar Di Me)'

# 무해한 것들에 끌리는 이유

‘튜닝의 끝은 순정’이라 했던가.

도파민이 마구 터지는 고자극 콘텐츠가 문화 소비자를 휩쓰는 한편,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힐링되는 무해한 콘텐츠를 찾는 발걸음이 늘고 있다.  
당신의 취향은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글 김송희 대중문화칼럼니스트





## 이유 없이 그냥 좋은 것

“너도 좋아 마시는구나?”

눈에 다 담기도 어려울 만큼 푸르게 펼쳐진 제주의 바다 앞, 낮은 돌담 위엔 바다만큼 싱그러운 배우 박보영이 생수를 마시고 있다. 그의 앞에 아장아장 걸어온 아기 인플루언서 태하가 “누나, 물 줄까요?”라며 똑같은 생수병을 건넨다. 혹시 아기가 들기 어려울까 물을 반만 채운 페트병이 찰랑댄다. 박보영과 ‘태오미’ 태하의 만남이라니, 생각만 해도 마음이 평온해지는 삼다수 광고는 전파를 타자마자 유튜브에서 3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 중이다.

물론 메인 모델 박보영의 팬들도 영상을 여러 번 봤겠지만, 댓글에는 온통 태하의 무해하고 사랑스러운 ‘광고 연기’에 대한 감탄이 가득하다. ‘태하 아기라서 물병 무거울까봐 물이 딱 한 모금 들어있음’, ‘와 진짜 한국인들이 호불호 없이 좋아하는 돌이 광고 찍었네. 너무 귀엽고 맑다’, ‘감독님이 어디까지 가라고 선 그 어렸나 보네. 바닥만 보고 쭈뼛쭈뼛 너무 귀엽다’, ‘박보영과 태하, 이 조합 생각해낸 삼다수 감다살이야’, ‘광고를 이렇게 여러 번 돌려보는 건 또 처음이네’ 등등. 위의 댓글에서 꼭 집어 언급했듯이, 박보영과 태하는 특별히 그들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기 어려운, 호불호 없이 전 세대의 사랑을 고루 받는 광고 모델임이 틀림없다. 세대와 성별을 불문하고 모두가 사랑할 수 있는, 나쁜 이슈와 연결되기 어려운 존재. 두 사람의 공통점을 바로 ‘무해함’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깨끗한 제주에서 길어 올린 천연의 암반수를 강조하는 생수 모델로 이보다 더 좋은 선택은 없을 것만 같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 사람들은 요즘 그러한 것들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내가 키우지도 않는 고양이를 유튜브에서 구독하고, 애는 없지만 유튜브에서는 아기 인플루언서들을 몇 명이나 구독하며 댓글로 남의 집 아이의 무사 건강을 기원한다. 랜선 집사, 랜선 이모·삼촌을 자처하고, 가방에는 여러 개의 캐릭터 인형과 키링을 주렁주렁 달고 다닌다. 학교, 직장 등에서 시달리고 지친 내 마음을 위로해주는 것은 오직 사랑스럽고 귀엽고 무해한 존재뿐이다.

## 존재 그 자체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대중의 취향을 가장 즉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무엇보다 영상 콘텐츠의 경향성이다. 넷플릭스에서 여전히 인기 순위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징어 게임> 시즌 3지만 잔인함으로 전 세계적인 히트를 기록한 이 시리즈 외에 요즘 인기를 얻고 있는 것은 의외로 말랑말랑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위로해주는 콘텐츠들이다. 대표적인 것이 위 광고의 주인공이었던 배우 박보영이 주연을 맡은 tvN <미지의 서울>이다. 이 드라마는 '위로와 힐링'을 가져다준다는 입소문을 타고 OTT 스트리밍 순위 1위는 물론이고 종영까지 꾸준히 시청률이 상승해 시청률 10%를 넘기며 화제성 1위에 등극했다.

쌍둥이 자매가 서로의 역할을 바꿔 살아 보며 상대의 괴로움을 이해하게 된다는, 우리 모두 타인의 아픔을 온전히 알 수는 없지만 누구보다 자신을 응원하고 사랑해주어야 한다는 매우 따뜻하고 온당한 메시지를 품은 이 드라마는 끝까지 많은 시청자에게 인생 드라마라는 찬사를 받으며 '용두용미'를 거두었다. 이 드라마야말로 시골과 서울을 오가며 무해한 배우들이 무해한 내용으로 시청자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콘텐츠였다.

유튜브 영상 역시 마찬가지다. 최근 '인기 급상승 동영상' 순위에서도 고양이를 주제로 한 콘텐츠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스탠드업 코미디언 송하빈이 운영하는 '언더월드' 채널의 주인공들은 송하빈이 아니라 그가 아내와 함께 키우는 고양이 춘봉, 첨지다. 얼마 전 '황철복'이라는 아기 고양이까지 입양해 세 마리 고양이의 집사가 된 이 채널의 구독자는 140만여 명이다. 고양이는 영상 촬영이 쉽지 않은 동물 중 하나다. 개처럼 활동이 많거나 리액션이 크지 않고 종일 잠을 자거나 웅크리고 있는 정적인 동물이다. 웃기거나 극적인 장면을 뽑아내기 쉽지 않은 고양이를 데리고 송하빈이 '쇼'를 벌이는 것이 이 유튜브 채널

의 핵심이다. 고양이들은 가만히 있고, 그 옆에서 고양이 아빠 코미디언이 쉴 새 없이 떠든다. 개냥이에 가까운 춘봉이와 대답을 잘하는 고양이 첨지가 아빠가 옆에서 뭐라고 떠들든 들은 척도 안 하고 웅크리고 있다. 영상의 댓글들도 '고양이들에게 이상한 것 시키지 않고 채널 주인이 혼자 떠드니까 맘이 편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동물이 스트레스 받지 않는 환경에서 영상 제작을 위해 고양이를 괴롭히지 않고 인간이 재롱을 떠는, 이 무해한 제작 환경이 시청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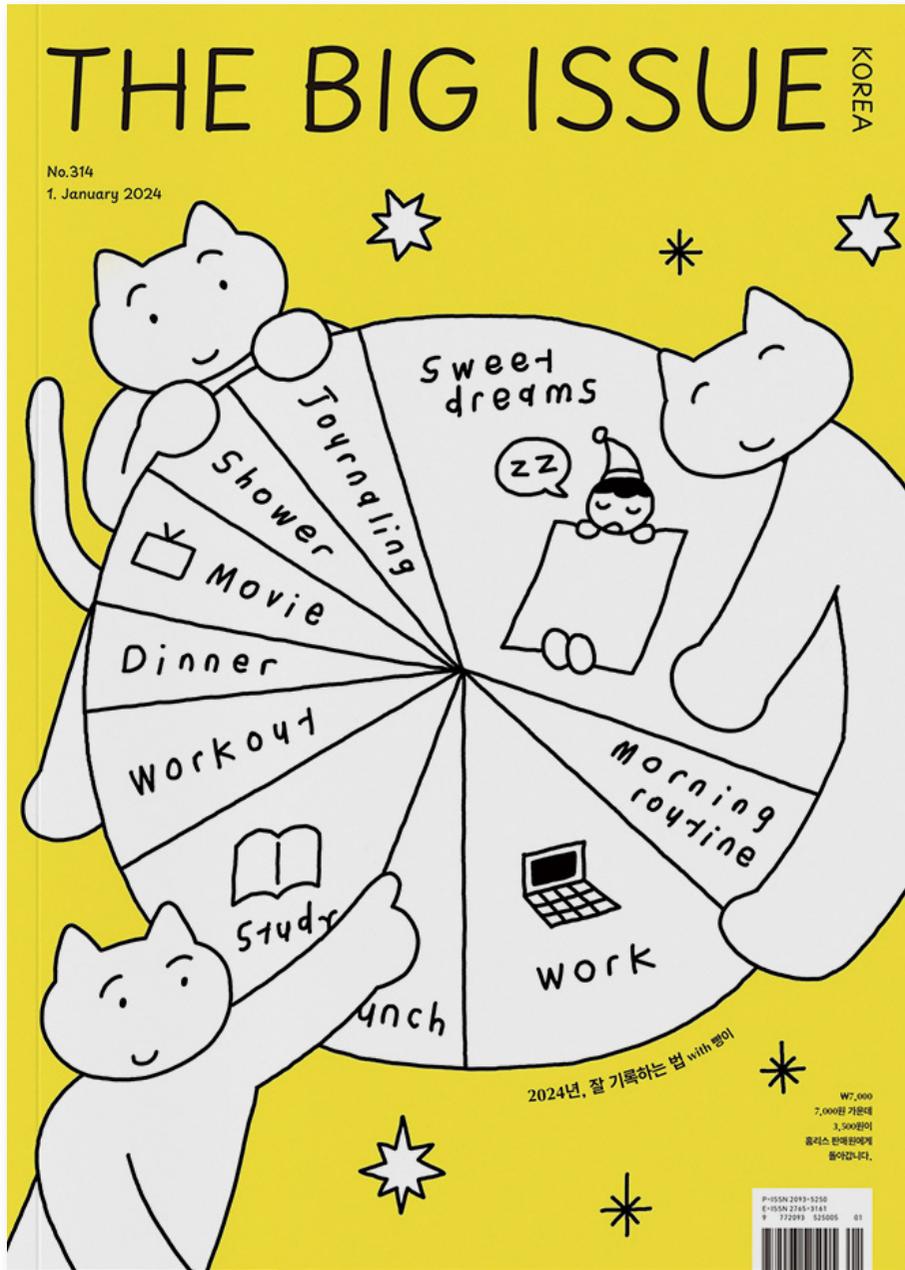
눈길을 사로잡는 매력적인 장면으로 확 시선을 붙들어 놓는 콘텐츠보다 마음 편하게 누구나 깔깔거리며 밥 친구(식사하며 틀어 놓는 영상)하기 좋은 <핑계고> 시리즈와 같은 영상 조회수가 200만을 넘는 것도 같은 이유일 것이다. <핑계고> 시리즈는 유튜브 영상 중 유독 분량이 긴 편이다. 대부분의 토크 유튜브가 10분 내외로, 일명 '엑기스'만을 담아 영상을 만드는 반면 핑계고는 길게는 2시간에 가까운 영상들도 있다. 그런 영상들을 사람들은 집중해서 보기보다는 청소, 설거지, 식사 등 집안일을 하면서 일상 BGM으로 틀어 놓는다. 흘러들어오 하등 문제없는 무난하고 쓸데없는 수다들. 그런 무해한 음성 토크를 들으며 마음 편하게 보내는 주말이야말로 제대로 휴식을 즐기는 방법이 된 것이다.



©tvN



©언더월드



©빅이슈코리아

## 무난한 게 아니라 무해한 취향입니다

대단한 스타나 아이돌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은 귀여운 것을 보면 마냥 지지하고 지갑을 열고 싶어 한다. 나는 수년째 잡지 <빅이슈코리아>를 만들고 있는데 '최고심'과 같은 캐릭터나 일러스트레이터 '뽀이'의 그림이 표지를 장식할 때, 유기 동물이나 동물 유튜브가 표지에 등장했을 때 못 스타가 표지에 등장할 때 보다 판매율이 높을 때도 있다. 특정 스타 표지는 해당 스타의 팬들만 구매한다면, 위와 같이 귀여운 캐릭터나 동물 표지는 훨씬 폭넓고 다양한 독자들이 구매한다.

이들은 모두 누구나 맘 편히 볼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최근 잡지의 표지는 <스킵과 로퍼>라는 일본 만화가 장식했는데, 이 표지를 진행하면서 만화 출판부와 미팅할 때 들었던 이야기가 있다. 코어 팬덤이 있는 만화들과 달리 <스킵과 로퍼>는 청춘 만화로 다양한 10대 캐릭터들이 꿈과 미래, 사랑을 고민하며 성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그 때문인지 만화의 충성 독자층의 연령대도 10대부터 40대까지 매우 폭넓다고 한다. 만화를 활용한 MD 상품 역시 몽글몽글하니 귀엽고, 색도 파스텔톤이라 부모님과 함께 사는 아이들도 자기 방에 장식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많아 구매율이 높은 편이라고 한다.

우리는 시간을 쪼개 쓰며 매일 경쟁에 쫓긴다. 잠시 정신을 놓았다가 구멍이 생길까봐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하는 하드보일드한 업무, 취업 준비, 공부에 시달린다. 한국 사회 대다수가 쫓기듯 하루하루를 버텨낸다. 열심히 살아서 무언가를 이룩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뛰지 않으면 뒤처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 때문이다. 내 삶도 지치고 힘든데 콘텐츠에서까지 피가 낭자하고 머리를 싸야 하거나 감정이 휘몰아치는 스토리라면 집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러니 그저 보기만 해도 마음이 편한 아이들이나, 아무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을 고양이와 강아지, 그리고 시시콜콜한 수다를 떨며 나와 크게 다를 바 없는 편안한 대화를 나누는 무해한 영상을 찾아본다. 귀엽고 사랑스럽고, 또 마음 편한 그 존재들이 사람들의 마음이 휴식을 향하도록 돕는다. 그렇게 무해하고 귀여운 것이 또 한 번 우리를 구원한다.

# 덜 해로운 사람

글·그림 홍화정



여느 날과 다름없이 쓰레기를 버리기 위해 단지 내 수거장으로 향했던 밤. 늦은 시간이라 그랬을까요, 그날따라 엄청난 양의 쓰레기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제 두 손에도 이미 쓰레기가 가득 들려있었는데 말이지요. 쌓인 쓰레기 더미 위에 제 쓰레기를 또 얹는데 막막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평생 버릴 쓰레기를 모은다면 이 쓰레기 더미보다 훨씬 더 큰 산이 만들어질 테지요. 끈적해진 손과 풍기는 악취, 압도당할 만큼의 쓰레기 더미 앞에서 '나는 지구에 이런 것들만 남기고 가는 게 아닐까?' 아득함과 동시에 죄책감이 몰려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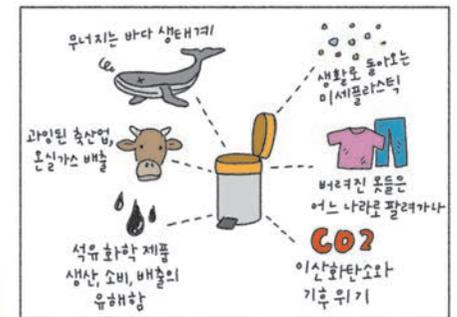
쓰레기의 자연분해 기간을 보면



분명 저보다 더 오래 지구에 남아 존재할 모습이 떠오릅니다.



단순히 쓰레기를 줄이고 싶어 자료를 찾아보기 시작했는데,



쓰레기가 환경부터 동물권, 인권문제까지 연결돼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가족들에게 가장 먼저 선언한 것은 “고기를 먹지 않겠다”였습니다.  
 축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에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아지면 기후 온난화가 가속화된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이후로 일상을 과격하게 바꾸어 나갔습니다. 텀블러, 쇼핑백, 스테인리스 빨대,  
 각종 비누(샴푸, 린스, 설거지 등), 소프트, 면생리대, 천연수세미, 손수건 등을  
 구입했습니다. 마트에 갈 때는 파우치를 들고 가 플라스틱에 담기지 않은 채소만  
 구입했는데, 종종 플라스틱에 담기지 않은 채소가 없어  
 구입하지 못하는 날도 생겼습니다.

가까운 곳에 외출할 때도 보부상 같이 커다란 가방을 메고 나갔습니다.  
 텀블러, 스테인리스 빨대, 손수건 등 챙겨야 할 물건이 많아졌거든요. 가족들이  
 외식하러 나가는 날에는 따라가지 않거나 옆에서 채소 반찬만 깨작거리다  
 돌아오곤 했습니다. 물티슈 대신 걸레와 행주를 쓰고, 면생리대를 직접 빨고, 배달  
 음식을 시켜 먹지 않으면서 집안일에 드는 시간이 많이 늘었습니다. 시간만 생기면  
 드라이브 가던 습관도 줄이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일도 줄였습니다.  
 ‘나 꽤나 멋지게 실천하고 있잖아? 이렇게만 살면 환경에도 동물에게도 해롭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어!’ 일상 곳곳에 손이 한 번 더 가고 불편한 일들 뿐이었지만,  
 불편하게 지내는 것은 무해한 인간이라면 어쩔 수 없이 감수해야 하는 것이었기에  
 오히려 뿌듯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난 어느 야심한 밤... 스트레스를 잔뜩 받은 채 배달 음식으로  
 육회를 시켜 먹고 있는 저를 마주하게 됩니다. 사실은 소고기를 좋아하고, 걸레와  
 행주를 세탁할 시간에 물티슈 한 장으로 간편하고 싶고, 비행기를 타고 여행  
 가는 것도 좋아하고, 주말마다 드라이브를 가고 싶고, 텀블러를 깜빡해서 일회용  
 컵에 커피를 사 먹고, 더운 날 무거운 가방을 메고 돌아다니다 ‘그냥 이것저것  
 챙기고 다니지 말까?’ 고민하게 되는 것도 비참했습니다. 가족들이 “고기는  
 안 먹는데 생선은 왜 먹냐? 생선은 생명 없냐?”라고 묻는 말에 할 말이 없는  
 무지한 저 자신에게 화도 났습니다. 내가 버리는 쓰레기는 줄었지만, 여전히  
 수거장에 한가득 쌓여 있는 쓰레기들을 보면 허무해지기도 했어요. 스스로의  
 모습에 혼란스러워하며 결국 육회를 먹는 나. 그저 무해한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돌이켜보니 나 자신에게는 유해한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깜빡하고 텀블러를 두고 나와 일회용 컵에 커피 마시던 날의 자책감



여행을 자주 떠나고 싶은 스스로가 마음에 들지 않던 날의 자괴감



스트레스에 못 이겨 결국 야식으로 육회를 시켜 먹던 날의 죄책감



그러던 어느 날, 팟캐스트를 들으며 일하고 있는데  
환경 전문 기자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어쨌든 일회용 플라스틱 컵 하나를 더 쓰는 것보다 덜 쓰는 것이 나아요.  
지속 가능한 것이 더 중요합니다.”

그 얘기가 제 머리를 딱! 치고 지나갔습니다.

‘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니라 누구나 완벽하게 하려고 하면 오래 할 수 없구나,  
오래하려면 지속 가능해야 해!’

어쩌면 지속 가능한 무해함이란

완벽히 무해한 사람이 아니라 덜 해로운 사람이 아닐까요?

덜 해로운 사람도 괜찮다고 생각하니 마음에 평안이 찾아왔습니다. 완벽히  
무해한 사람은 버겁고 힘들지만, 덜 해로운 사람은 어렵지 않고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는 것도 많아 지속할 자신 있거든요.

덜 해로운 사람이 되고자 오랫동안 노력한다면,

언젠가는 무해한 사람의 근처에 다가설 수 있을지도 모르지요.

‘오래오래 덜 유해한 사람이 되자’는 마음으로 오늘도 텀블러를 들고 우리집  
강아지와 산책을 나섭니다.

무리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쉬고 오래할 수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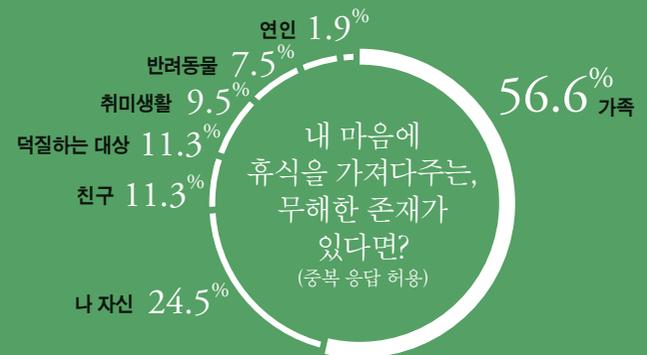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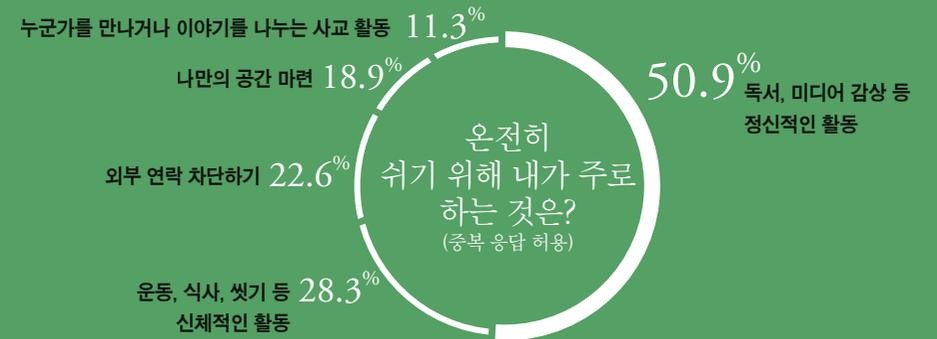
## 덜 해로운 물건과 행동들



## 화성 시민들은 어떻게 쉬고 있을까?

《화분》 독자 참여 앙케트

즐거운 여행 뒤에도 여독을 푸는 시간이 필요하듯, 열심히 사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쉽이다.  
화성 시민들이 가장 편안하고 무해해지는 때는 언제일까. 마음에 휴식을 가져다주는 존재가 있을까?  
《화분》의 질문에 답해준 시민들의 이야기를 모았다.



나의  
무해한 존재에게  
사랑이 담긴  
한 마디

세상에서 제일  
무해한 미소를  
가진 우리 가족,  
사랑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다른 사람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다.

네가 나의 삶에 와줘서  
정말 고마워.  
지치고 힘들 때도 너의 순수한  
눈망울을 보면 모든 걱정이  
녹아내리는 것 같아.  
건강하게 내 곁에 오래오래  
있어 줘. 사랑해!

너는 내  
온  
우주야.

내 마음의  
안식을 주어 고맙고,  
앞으로 화내지 않고  
친절하게 잘할게.

나의 못난 부분도  
이해해주고 넉넉히  
받아주는 당신에게  
고맙고 사랑해.

너는 나에게  
힐링이야!

지니야  
간식 먹자!

늘 든든한 힘이  
되어 주는 우리  
가족들 모두 고맙고  
사랑합니다.

지금은 괜찮아,  
다음은 다음에.

충분히  
잘하고 있어.  
쉬어가도 돼.

그동안 잘  
살아줘서 고맙고  
항상 응원해.

내 인생을  
다채롭게  
만들어줘서  
고마워~

힘든 엄마를  
항상 따뜻하게 안아 주는  
사랑스러운 우리 딸.  
나보다 넓은 마음으로  
항상 나를 챙겨 주는  
내 마음의 휴식.

이렇게  
존재해줘서  
고마워 ♥

당신과 아이들이  
있어서 나도  
안도하고 힘내게  
되네~

THE 가다  
walk

# 흙과 함께하는 고요한 휴식, 도예

화성시 도자기 공방 탐방

모든 것은 흙에서 시작해 흙으로 돌아간다는 말이 있다.  
흙은 집을 만드는 재료가 되고, 음식을 먹는 그릇이 된다. 그뿐인가.  
예술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흙을 만지며 고요함을 음미하는  
도예의 매력 속으로.

글 차예지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나의 작은  
도자기 정원  
공방정인



경기 화성시 지산1길 18-24 지하 1층  
0507-1323-2862

영업시간  
수~토 10:00~17:00  
매주 월, 화, 일 휴무

한백초·중·고 근처에 위치한 이곳은 올해로 문을 연 지 5년째 된 작은 공방이다. 나정인 대표는 나무와 식물을 주제로 그림을 그리고 도자기를 굽는 예술가다. 작년에는 화성시 동탄북합문문화센터 아트스페이스에서 <작가의 선물가게>라는 기획전을 선보이기도 했다.

‘식물과 휴식’을 콘셉트로 작품 활동을 하는 만큼 공방은 식물, 그리고 식물을 모티프로 한 작품들로 가득했다. 바라보기만 해도 눈이 시원해지고 마음이 정화되는 풍경이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며 남긴 화분들에 더해 하나둘 모은 식물들이 이제는 공방을 꽉 채울 정도로 많아졌다고.

공방의 식물들은 영감이 되어주기도 하고, 도자기의 재료가 되기도 한다. 흙에 나뭇잎을 대고 누르면 잎맥이 흙에 새겨지는데, 이를 따라 도구로 굴곡을 파내고 나뭇잎 모양으로 흙의 테두리를 잘라 작품을 만든다. 자연에서 온 흙과 나뭇잎으로 만드는 도자기라니,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작품이 아닐까.

공방정인의 특별함은 자유 만들기 클래스에 있다. 본인이 원하는 건 무엇이든 만들 수 있는 수업이다. 최근 공방을 찾은 한 부부는 낚시가 취미여서, 마음에 쏙 드는 회 접시를 만들고 싶어 했다고 한다. 손님들이 욕동을 났을 커다란 회 접시를 만드는 모습을 보며 나 대표 또한 새로운 작품 아이디어를 얻기도 했다.

나정인 대표는 한쪽 벽에 가득 걸린 자신의 작품들을 욕망에서 탄생한 것들이라고 소개한다. 식물은 언젠가 죽기 마련이기에 그 생명력을 오래오래 간직하고 싶은 마음에 도자기로 구워 보존하고 싶었다는 설명이다. 보통은 도자기를 식기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지만, 쓸모를 생각하기 이전에 존재 자체가 의미가 될 수도 있는 법이다.

푸르름 가득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개성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다면, 공방정인을 찾아보길 추천한다.



순간의 추억을  
평생 남을 작품으로  
아틀리에 소휴



경기 화성시 노작로2길 12 1층  
0507-1394-0471

영업시간  
화~목, 토~일 13:00~17:00  
매주 월, 금 휴무

동탄 노작공원 근처, 화실과 가죽 공방 등이 모여있는 작은 공방 거리에 해가 잘 드는 널찍한 도자기 공방이 있다. 아틀리에 소휴는 동탄에 있는 도자기 공방 중 가장 큰 규모의 공방이다. 그래서 근처에 위치한 기업에서 단체 수업을 위해 많이 찾고, 도자기 공예 체험을 위해 여럿이 방문하기도 한다. 직장인들로 구성된 단체 클래스도 운영한다. 이 공간에는 최대 50명까지 수용이 가능하다.

아틀리에 소휴의 여러 수업 중에서도 아기, 강아지 발을 찍어내 만드는 발 도장 클래스가 호기심을 자극했다. 동탄은 신도시인 만큼 아이를 키우거나 반려동물과 함께 생활하는 시민들이 많다. 공방을 운영하는 이선호 대표 또한 반려견과 함께 살고 있어, 처음엔 본인의 강아지 발도장을 남겨보고 싶다는 생각에서 시작한 일이 어느새 클래스로 자리 잡았다.

맘 앤 키즈 클래스, 반려견 발 도장 클래스는 흙 반죽에 아기의 손과 발, 혹은 강아지의 발을 도장 삼아 꼭 눌러 찍고 구워내 접시나 오브제로 활용할 수 있는

수업이다. 아기나 반려동물을 데리고 와 체험하는 일이 쉽지는 않기 때문에 도자기를 구워 유약을 바르는 후처리하는 공방에 맡길 수 있다. 제작한 도자기는 100일 기념품, 돌잔치 답례품으로도 자주 활용된다. 이곳의 모든 원데이클래스는 1:1로 진행되니 조용한 분위기에서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싶다면 아틀리에 소휴를 방문해보는 것도 좋겠다.



작은 술잔 안에  
꽃을 담다  
담을도예공방



경기 화성시 여울로3길 10-2 1층  
0507-1321-39821

영업시간  
화~일 11:00~19:00  
매주 월요일 휴무

담을도예공방은 2014년부터 화성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는 도자기 공방이다. 정규 수업과 원데이 클래스를 모두 체험할 수 있고 6종류의 흙을 보유하고 있어 다양한 재료를 사용해볼 수 있다. 유약의 종류도 여럿이어서 공방 내 비치된 견본을 보고 흙과 유약마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핸드빌딩 수업을 기본으로 재료나 기법이 한정적이지 않고 자유로운 작업이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정규수업의 경우 수업 시간 내 재료나 작업 개수 등의 제한 없이 원하는 작업이 가능하다. 접시용 편편한 흙 반죽을 깎아내거나 반대로 흙을 덧붙여 입체감을 만드는 기법으로 원하는 작품을 만들어볼 수도 있다. 술잔 안에 작은 모란과 벚꽃, 상징물들을 담은 작품은 담을도예공방의 시그니처다. 작은 잔 안에 그림을 그리고 가운데에 작은 토우(土偶)를 붙여 만든다. 꽃 시리즈, 고구마 등 구황작물을 모티프로 한 시리즈, 호랑이나 오리 같은 동물을 토우로 만든 것도 있다. 이곳에서 만드는 토우 중 고구마 모양을 형상화

한 '늪구마'는 이 공방의 감쪽한 마스크트다. 모란잔은 공모전에 당선되어 국립중앙박물관과 민속박물관, 광주·제주박물관의 기념품 가게에 납품하고 있고 다른 잔들도 여러 기관을 통해 답례품이나 기념품 등으로 유통되고 있다고 한다. 화조어해도(花鳥魚蟹圖)에 등장하는 물고기와 새를 표현한 잔은 국립해양박물관의 해양문화상품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의 공식 답례품으로 납품 중이다. 상품 패키지에 디자인까지 직접 한다는 박민지 대표. 그의 금손으로 빛은 도자기가 공금하다면 담을도예공방에 방문해보시길.



THE 가다  
make

## 지구와 나를 위한 건강한 '빵 생활'

봉담읍 카페 '브리즈'와 함께  
비건디저트 만들기

연일 더운 날씨가 이어지는 요즘이다. 시원한 커피 한 잔에 달달한 디저트 한 입이 간절해지는 이 여름, 비건으로 만든 건강한 빵과 쿠키를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 자극적이지 않은 무해한 맛에 금세 빠져버릴지도 모른다.

글 차예지 사진 김성재(싸우나스튜디오)



## 추로스 마들렌 만들기

(10~12개 분량)

### 재료

쌀가루 100g, 아몬드 가루 20g,  
베이킹파우더 4g, 두유 80g,  
식용유 50g, 비정제 원당 30g,  
메이플시럽 30g, 시나몬 가루 2g,  
바닐라 오일 3~4방울(생략 가능)

### 직접 먹어본 에디터의 코멘트

추로스를 먹고 싶는데 사 먹을  
곳이 마땅치 않을 때, 훌륭한  
대안이 될 듯하다. 은은한  
시나몬 향이 기분 좋게 퍼진다.  
우유와 버터가 들어가지 않아  
먹고 나서도 입 안이 텁텁하지  
않아 좋았다. 바닷가의  
황금빛 모래가 잔뜩 묻은  
듯한 조개껍데기 모양 또한  
매력적이다.



① 두유와 식용유를 한 볼에 넣고 분리되지 않게 잘 저어준다.



② 1에 메이플시럽과 비정제 원당을 넣는다. 비정제 원당이 없는 경우 일반 백설탕을 써도 되지만 일반 설탕이 좀 더 달기 때문에 양을 적게 넣어야 한다.



③ 풍미를 위해 바닐라 오일을 3~4방울 떨어뜨린다.(생략 가능)



④ 반죽에 가루류를 모두 넣고 알갱이가 보이지 않게 잘 섞어준다.



⑤ 마들렌 팬에 식용유를 발리준다. 너무 많이 바르면 빵이 튀기듯 구워지기 때문에 극소량만 발라야 한다.



⑥ 완성된 반죽을 팬에 붓는다. 이때 찢주머니를 이용하면 쉬운데, 찢주머니가 없는 경우 지퍼백이나 일회용 비닐을 이용해도 된다. 반죽은 팬의 90% 정도만 차도록 붓는 것이 좋다.



⑦ 200℃ 이상으로 예열한 오븐에 190℃ 5분, 180℃로 낮춘 뒤 10분 구워준다.



⑧ 구워진 마들렌을 잠시 식혔다가 오일 또는 녹인 비건버터를 살짝 바른다.



⑨ 비정제 원당(혹은 설탕)에 시나몬 가루를 약간 넣어 섞고, 오일을 바른 마들렌의 한 면에 묻힌다.

## 곰돌이 초코칩 쿠키 만들기

(70g 6개 분량)

### 재료

쌀가루 100g, 통밀가루 40g,  
아몬드 가루 20g,  
베이킹파우더 4g, 두유 44g,  
식용유 50g, 비정제 원당 80g,  
메이플시럽 10g, 초코칩 40g,  
분쇄 호두 40g

### 직접 먹어본 에디터의 코멘트

시판 쿠키들보다 덜 달아서 부담 없이 먹기 좋다. 고소한 견과류와 메이플시럽 향이 맛을 더한다.

너무 꾸덕하지도, 너무 파삭하지도 않은 적당한 무게감이라 한 번 먹기 시작하면 멈출 수 없는 맛이다.



① 액체류(두유, 오일, 메이플시럽)를 한 데 섞고 층이 분리되지 않게 살짝 저어준다.



② 비정제 원당을 넣고 설탕 가루가 한 데 섞고 층이 분리되지 않게 살짝 저어준다.



③ 가루류를 모두 넣고 섞는다. 약간 남아있을 정도로만 섞어준다.



④ 주걱을 세로로 세워서 반죽을 섞어준다. 80% 정도 섞었을 때 초코칩과 분쇄 호두를 넣어 흰 가루가 안 보일 정도로만 섞어준다.



⑤ 달걀 한 알보다 약간 큰 정도 크기로 반죽을 떼어 곰돌이 얼굴과 귀를 만든다.



⑥ 오븐을 190℃에서 10분 이상 예열한 뒤 180℃에서 13분 정도 구워준다. 굽는 중간에 한 번 뒤집어주면 더 고르게 익는다. 만일 에어프라이어를 이용한다면, 문을 여닫을 때 열 손실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높은 온도로 예열해 줘야 한다.



⑦ 완성된 쿠키에 초콜릿, 견과류 등으로 장식해주면 완성.

**브리즈  
VREEZE**

경기 화성시 봉담읍  
와우로73번길 20 상가동 103호

영업시간  
월~토 9:00~18:00  
(매주 일요일 휴무)

문의  
0507-1389-5372



vreeze  
No egg • butter • milk

**무해한 미소로 손님을 맞는 곳**

오늘 비건 추로스 마들렌과 초코칩 쿠키 만들기를 함께 해 준 곳은 화성시 봉담읍에 위치한 카페 '브리즈 (Vreeze)'다. 비건(vegan)과 브리즈(breeze)를 합성해 '일상에서 부는 비건 바람'이라는 뜻을 담았다. 이에 지-이예은 자매가 소박하지만 다정한 공간을 꾸려나가는 곳이다.

매장 곳곳 놓인 초록 식물과 아기자기한 장식들, 손재주 좋은 이예지 대표가 만들고 그린 소품들은 보기만 해도 웃음 짓게 된다. 무엇보다 두 자매의 친절하고 환한 미소가 무해하고 따뜻한 기분을 가져다준다.

브리즈는 2021년 문을 열었다. 매장에 판매하는 모든 과자와 빵은 계란, 우유, 버터를 사용하지 않은 비건 식이다. 음료의 경우 우유가 들어가는 메뉴도 있지만 식물성(두유)으로 변경할 수 있다. 비건이어서 비건 카페를 연 건 아니었다. 하지만 카페를 운영하면서 비건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실제로 고기를 먹는 양도 많이 줄었다고 한다. 비건식은 단순히 육식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를 넘어 특정 재료에 알레르기가 있거나 유당불내증 등으로 유제품을 먹지 못하는 경우에도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다.

"쌀가루로 만드는 빵 종류도 있는데, 밀가루를 못 드시는 분들이 많이 찾아요. 자기도 이제 빵 먹을 수 있다고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해요."

글루텐 성분을 대체한 특수 쌀가루를 사용해 만드는 빵이라 들어가는 비용이 만만치 않지만 즐거워하는 손님들을 보며 기쁜 마음으로 만든다.

**발길이 이어지는 공간을 위해**

그만큼 좋은 재료로 구워내는데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어 가끔은 단골손님들에게 가격을 좀 올려도 되지 않겠냐는 애정 어린 조언을 듣기도 한다. "그렇게 말씀해주셔서 정말 감사하지만, 막상 가격을 올리면 또 반응이 다르실 수도요. 하하."

카페를 꾸러온 시간만큼 자주 찾아오는 단골도 늘었다. 취재를 갔던 날도 강아지와 함께 온 단골손님과 편안하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반려동물 동반이 가능한 곳이어서 귀여운 강아지 손님도 많다. 벽 한편에는 단골 강아지 손님들의 사진이 가득했다. 사랑은 힘이 센 법이다. 애정을 가지고 손님들을 대하면 한 번의 방문이 두 번, 세 번으로 이어지는 건 당연하지 않을까.

빵과 과자 외에 직접 만든 과일청을 사용한 음료들도 호기심을 자극한다. 달콤한 과일청에 탄산을 더한 에이드 메뉴들은 각자의 청량함을 자랑한다. 에스프레소 샷에 오렌지 청을 더해 상큼하면서 고소한 맛의 오렌지 비앙코도 특색있다.

여름이 점점 더워지는 이유에는 우리가 고민 없이 먹고 쓰는 것들이 숙제가 되어 돌아왔기 때문도 있다. 지구에 조금이나마 해를 덜 끼칠 방법은 많다. 나와 내가 사랑하는 것들이 오래오래 함께할 무탈한 일상을 위해, 비건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해 보는 것도 좋겠다.



THE 가다  
travel

## 화성 궁평항으로 떠나는 '무해한' 힐링 여행

118년 만의 폭염이라는 숫자의 온도는 뜨거워도 여름휴가를 멈출 수는 없다. 오매불망 기다린 바캉스를 싸늘한 에어컨 앞에서 보낼 수 없기 때문이다. 화성시로 떠난 촌캉스 여행은 외할머니와 함께 보낸 유년의 기억이 떠올라서, 정겹고 촌스러워서 더 애뜻하다. 고택에서 맞이하는 청명한 아침, 평화로운 승마장에서 다정하게 걸었던 말들과의 산책, 궁평항을 붉은빛으로 물들이는 노을이 황홀한 저녁, 그 모든 무해함의 힐링 포인트마다 화성의 여름이 뜨겁게 좋았다.

글 민혜경(여행 작가) 사진 민혜경, 궁평캠프 제공

##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경험하는 법,

### 공평캠프

‘공평캠프’는 승마 시설과 더불어 카페, 놀이터, 정원으로 이루어진 약 1만 평의 승마 놀이공원이다. 국내 최대 규모의 영유아 승마 체험 및 아카데미를 통해 힐링 승마 체험을 제공하며 체험과 상담 및 인지심리 전문가인 치유농업사가 말 매개 심리 치유를 안내해 준다.

공평캠프의 치유농업사는 승마장에서 진행되는 치유 시간에 말과 함께 걸으며 마음의 안정과 휴식을 경험하는 기회를 준다. 공평캠프에는 말과 함께 하는 캠핑, 캠핑과 피크닉을 함께 즐기는 ‘캠크닉’도 가능하다.

공평캠프에는 매주 찾아오는 어른과 어린이들이 있다. 누군가는 낯을 가리고 누군가는 말수가 적지만 누구보다 조용하고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다. 그리고 공평캠프에는 사람보다 먼저 감정을 건네고 눈빛으로 위로를 건네는 아름다운 동물, 말이 있다. 첫 만남은 말의 이름을 불러보는 것으로 시작된다.

“말이 절 보고 있어요”, “제가 먼저 다가가도 되나요?”, “혹시 말이 무섭지는 않나요?” 등 조심스러운 첫 반응이 이어지지만, 천천히 마음을 열고 걸음을 맞추며 걷고 나면 어느새 사람의 눈빛도 말의 무해한 눈빛을 닮아 평온해진다. 말 옆에 다가가서 가만히 서 있거나 말의 몸을 살며시 쓰다듬거나 좀 더 친해지면 말의 갈기를 빚어주면서 조용하고 깊은 감동의 순간을 경험할 수도 있다. 어린이아들은 말에게 간식으로 당근을 주며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공평캠프의 치유농업은 단순한 동물 체험이 아니라 말을 통해 나를 표현하고 서로를 이해하며 천천히 관계를 맺어가는 심리적·정서적 회복의 여정이라고 볼 수 있다. 말과 함께 걷는 시간은 기다리는 과정과 조금씩 다가가는 연습과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다 보면 말에게서 얻는 치유의 힘을 만나게 된다. 말하지 않아도 눈을 마주치고, 숨소리를 나누고 천천히 걷는 것만으로 마음이 쌓이면서 말과 사람 모두 무해함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다.

### 공평항에서 만나는 하늘, 바람, 갈매기

#### 그리고 노을

2008년 국가 여항으로 지정된 공평항의 낙조는 화성 8경 중 하나로 손꼽힌다. 공평항에서 공평 해변을 잇는 415m의 공평 낙조길은 나무 데크로 조성되어 산책하기 좋다. 공평 낙조길 오른쪽으로 화성국가지질공원의 공평항 지질 명소를 볼 수 있다. 공평항에서 모래톱까지 약 300m의 해안에는 선캄브리아시대에 형성된 규암과 편암 등 변성암으로 이루어진 절벽을 비롯해 다양한 지질 구조가 분포한다.

공평항 바다를 향해 돌아서면 한껏 팔을 벌려 끌어안은 듯 아늑한 방파제 풍경이 인상적이다. 방파제 초입의 공평항 전망 카페 벽에는 하늘을 나는 푸른 고래와 인어공주가 그려졌다. 보기만 해도 마음이 평화로워지는 바다 그림 벽도 포토존이다.

공평항은 갯벌, 낚시, 보트 체험부터 낙조길 산책, 수산물직판장과 푸드트럭, 공평항 노을까지 구미대로 선택해서 즐길 수 있는 완벽한 바다 체험장이다. 공평리 휴양마을 체험장에는 아이들을 위한 갯벌 체험 뿐만 아니라 어린이 낚시 체험과 오리배 체험 등도 마련되어 있다.





궁평 낙조길 산책로는 서해의 노을 맛집으로 소문이 자자하다. 해가 뉘엿뉘엿 떨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의 발길이 궁평 낙조길로 모여든다. 바닷바람을 맞으며 데크 길을 걷다 보면 작은 등대와 정자가 보이고 벤치엔 노을을 감상하는 사람들도 눈에 띈다. 사진을 찍기도 하고 말없이 노을에 마음을 빼앗긴 사람도 있다. 바다 위로 날아가던 갈매기도 데크 위에 앉아서 붉게 물드는 노을을 바라보는 시간, 바다와 하늘 사이로 해가 점점 기울며 붉은빛이 부드럽게 퍼지기 시작한다.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 하루의 피로가 노을 속으로 사라진다. 궁평항의 노을은 소란스럽지 않아서 더 좋다. 궁평항의 하루가 차분하고 무해하게 저문다.

**궁평항을 달콤쌔름하게 즐기는 법,  
궁평항 칼국수와 카페 감들**

궁평리는 예로부터 궁에서 직접 관리하던 땅이 많아 궁평 또는 궁들이라고 불렸다. 서해의 해안과 갯벌을 자연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바지락, 맛조개, 굴, 낙지, 칠게 등을 채취하는 어촌 체험도 풍성하다. 궁평항 데크 길을 걷다가 출출해지면 궁평항에 있는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에서 횡감과 싱싱한 해산물로 한 끼를 즐겨도 좋다. 2층으로 이루어진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은 횡감은 물론 조개나 전복류, 낙지와 문어, 건어물과 젓갈까지 다양한 수산물을 만날 수 있는 곳이다. 궁평항 주차장 옆에 있는 푸드트럭에서 파는 새우튀김은 수산시장 앞의 인기 주전부리다. 큼직한 새우를 그 자리에서 바삭하게 튀겨주는데, 달콤 고소한 새우 냄새에 발길이 멈춘다.

궁평항에 왔으니 통통한 바지락살이 듬뿍 들어간 칼국수를 먹어도 좋다. 커다란 솔에 말린 해물과 바지락으로 시원한 육수를 내고 직접 반죽해서 썰어낸 손칼국수를 넣어 뜨끈하게 끓여낸 바지락 칼국수는 눈으로 먼저 힐링이다. 쫄깃한 바지락 살을 얹어 두툼한 면발을 한 젓가락 집어 입에 넣으면 두 번째 힐링이 쫄득하게 씹힌다. 시원하게 담근 열무김치는 아삭아삭 싱싱하게 바지락 칼국수와 절묘하게 어우러진다. 강렬한 자극 하나 없이 순한 맛의 바지락 칼국수와 열무김치로 차려진 저녁 식사가 무해한 포만감을 불러온다.

화성 여행의 마지막 코스는 한옥카페 감들이다. 주인장의 증조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셨다는 한옥은 120년이 흘렀는데, 단아한 외관과 천정의 예술적인 서까래까지 구경할 곳들이 120가지가 넘는 곳이다. 옛집의 구조가 고스란히 느껴질 만큼 카페 구성구석 공간 배치도 아름답다. 베이커리 종류도 시그니처 썩, 고구마, 옥수수 등 시골스러운 정취가 느껴지는 디저트 빵들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함께 주문한 120 홍시라떼는 홍차와 홍시를 곁들여 달콤하고 향긋하다. 카페 중정에 꾸민 남천 꽃밭은 어느 자리에서 보아도 감성적이라 또 다른 날을 기억할 수밖에 없다.





## 촌스럽고 정겨워서 행복한 촌캉스, 백미 응서재

이름부터 독특한 한옥스테이 백미 응서재는 120년 된 고택의 고풍스러운 외관이 압도적이다. 손님방으로 쓰이는 문간방 두 개의 툇마루가 대문 양쪽으로 놓여 있어 손님을 반갑게 맞아주는 느낌이다. 문을 열고 마당으로 들어서면 작은 테이블과 의자가 놓여 있고 그 옆에 블루베리가 익어가는 작은 화단이 눈에 들어온다. 요즘 MZ들에게 사랑받는 촌캉스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풍경이다.

백미 응서재는 안채의 큰방 1개와 작은 방 2개를 에어비앤비로 운영한다. 널찍한 마당에 놓인 테이블에 선 차를 마시기도 하고 식사를 해도 좋다. 저녁을 먹다가 문득 올려다본 하늘의 노을 풍경에 감동하는 건 이 집에서 일상이다.

MZ들은 시골 할머니들이 애용하는 꽃무늬 바지에 촌스러운 조끼를 입고 인증 샷을 남긴다. 고택 외부 마당에는 바비큐 장소가 따로 있고 '불멍'을 위한 장소도 마련되어 있다. 바비큐장에서 노릇노릇 삼겹살을 구워 상추쌈을 먹어도 맛있고 궁평항 수산물직판장에서 싱싱한 회 한 접시를 떠다 툇마루에 앉아 먹어도 일품이다. 낮에는 바다낚시나 갯벌 체험도 할 수 있어 남녀노소 누구나 알찬 추억을 만들 수 있다.

밤이 오면 햇볕에 바삭 말려 기본 좋은 햇벌 냄새가 배어있는 순백의 침구를 내어준다. 외할머니가 부지런히 챙겨주셨던 추억의 모기장도 보인다. 바스락거리는 하얀 이불과 모기장 감성에 꿀잠을 잔다는 소문이다.

120년의 세월이 배어있는 백미 응서재는 에어컨 없이 산과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작은 선풍기로 더위를 식히는 전통 한옥이다. 추억이 가득한 옛집에서 자연풍의 히룻밤을 보내고 나면 타임머신을 타고 100년 전으로 돌아간 듯 클래식한 감성에 팍팍했던 몸과 마음도 절로 말랑해진다.

### 궁평캠프

경기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206  
전화 \_ 070-8828-1111  
운영시간 \_ 수-일 09:00~18:00  
매주 월-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당일 휴무  
승마 체험료 \_ 기본 4만 원, 프리미엄 6만 원

### 궁평항 낙조길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궁평항로 1049-24  
궁평항 수산물 판매장  
전화 \_ 031-356-7339(어촌체험마을 안내소)  
관람시간 \_ 24시간 연중무휴  
입장료 주차료 무료

### 한옥카페 감뜰

경기 화성시 서신면 담발성지길 8  
전화 \_ 031-357-8666  
영업시간 \_ 매일 10:00~20:00

### 백미 응서재

경기 화성시 서신면 백미길 84  
전화 \_ 010-3065-7171

# 공연, 일상을 다채롭게

## 화성시문화관광재단 8~10월 시즌 공연 프리뷰

여름을 지나 가을 초입까지, 일상을 다채롭게 물들일 공연들이 찾아온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화성·반석·누림아트홀 및 야외공연장 등  
여러 공간에서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는 공연을 만나보자.

글 최송하(공연기획팀)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뮤지컬단



©PL 엔터테인먼트

### 뮤지컬 <다시, 봄>

####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창작뮤지컬 <다시, 봄>은 현재를 살아가는 중년 여성의 삶과 깊이 맞닿아 있다. 누군가의 딸이자 엄마, 아내로 살아온 50대 여성들을 위한 작품으로, 연기 경력 평균 30년 이상의 7명의 배우들이 함께 이끌어 가는 웃음과 감동 가득한 뮤지컬이다. 상처를 보듬고 위로하는 이 공연을 아내, 엄마, 가족과 함께 관람해 보는 건 어떨까?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창작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이 화성에 찾아온다. 자유와 정의를 노래하는 조선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작품은 2019년 첫선을 보인 이후 세련된 연출, 풍성한 음악, 강렬한 메시지를 통해 창작 뮤지컬의 가능성을 보여주며 올해 다섯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다.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축제 같은 이 무대를 함께 즐겨보자.

전통 <경성유행가-판을 나온 소리>  
<살로메>

국립국악원의 <경성유행가-판을 나온 소리>가 100년의 세월을 넘어 관객과 만난다. 1920~1930년대 경성, 소리를 기록하기 시작한 당시를 풍미했던 레코드 속 유행가들이 국립국악원 민속악단의 목소리를 통해 되살아난다. 당시 신식 극장을 그대로 옮겨온 듯한 무대 장치와 의상은 마치 100년 전으로 시간 여행을 떠나는 듯한 기분을 선사한다.

창극 <살로메>는 오스카 와일드의 희곡을 원작으로 한다. 성의 경계를 허문 크로스젠더 작품으로, 창극 배우인 김준수, 최예림 배우가 살로메를 연기한다. 동서양의 조화, 전통과 현대를 잇는 이 작품은 국악에 서양 악기를 녹여내고, 판소리 창법에서 벗어나 뮤지컬적인 요소를 더했다.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그린 강렬한 작품을 통해 공연 관람의 지평을 넓혀보는 것은 어떨까.



콘서트 **금요일N재즈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 카리나 네블라>**

주말의 시작을 알리는 특별한 금요일 밤, 금요일N재즈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 카리나 네블라>가 반석아트홀을 찾는다.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는 프랑스 출신의 재기발랄한 재즈 피아노 트리오로, 재즈를 바탕으로 록, 힙합, EDM 등 다양한 장르를 아우르는 음악으로 관객의 사랑을 받고 있다. 함께 무대에 오르

는 카리나 네블라는 한국 최초의 여성 4인조 재즈 보컬 그룹으로, 스캇만으로 구성된 독창적인 곡들로 대중음악계에 신선한 충격을 안기고 있다. 두 팀이 선사하는 이 특별한 무대를 통해, 재즈와 함께하는 금요일 밤의 추억을 만들어보자.

렉처 콘서트 PART II <어머니의 노래, 우리 가곡>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화성시 문화의 날 공연이 이어진다. 8월부터 11월까지 매일 마지막 주 평일 저녁에 펼쳐지는 이번 공연은 아름다운 우리 가곡, 음악으로 풀어낸 시, 영화와 소설에 녹아 있는 클래식을

깊이 있게 만날 수 있는 시간이다. 올 하반기 한층 더 다채롭고 깊어진 렉처 콘서트를 통해 삶의 활력이 되는 순간을 만나보길 바란다. 화성시 문화의 날 공연은 단돈 1만 원으로 관람할 수 있다.



베이스 이세영



소프라노 김현희



테너 구본진



피아니스트 김은정



해설자 및 바리톤 오유석



뮤지컬 <다시, 봄>  
일시 8. 14.(목) 19:30  
8. 15.(금) 15:0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R석 5만 원/S석 4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국립국악원  
<경성유행가관을 나온 소리>  
일시 8. 22.(금)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화성시 문화의 날]  
2025 렉처 콘서트 PART II  
<어머니의 노래, 우리 가곡>  
일시 8. 27.(수)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김요일N재즈  
<레미 파노시앙 트리오 & 카리나 네블라>  
일시 9. 19.(금)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4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2025 렉처 콘서트 PART II  
<음악이 된 시>  
일시 9. 24.(수)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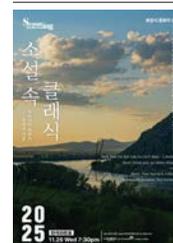
뮤지컬 <스웨그에이지: 외쳐, 조선!>  
일시 9. 26.(금) 19:30  
9. 27.(토) 14:00, 18:30  
9. 28.(일) 14:00  
장소 화성아트홀  
가격 VIP석 9만 원/R석 8만 원  
S석 7만 원/A석 5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창극 <살로메>  
일시 10. 15.(수) 19:30  
10. 16.(목)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R석 3만 원/S석 2만 원  
대상 14세(중학생) 이상



2025 렉처 콘서트 PART II  
<영화에 녹아 든 오페라>  
일시 10. 31.(금)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2025 렉처 콘서트 PART II  
<소설 속 클래식>  
일시 11. 26.(수) 19:30  
장소 반석아트홀  
가격 전석 1만 원  
대상 8세(초등학생) 이상

※ 공연 문의 1588-5234

# 내게로 와 비로소 꽃이 되다

화성시 생활문화동호회 '그린숲'

시작은 아마 바라보는 것부터였을 것이다. 그저 예쁘고 고와서 하염없이 바라보다, 사진을 찍어 간직하고, 그다음 단계는 똑같이 그려본다...? 식물을 실제처럼 그리는 것이 쉬울까 싶지만, 그린숲 회원들은 가능하다고 이야기한다. 모든 일이 그렇듯, 처음부터 잘하려 들지 말고 '힘을 빼고' 서서히 그 매력에 스며든다면,

글 이현주 사진 김영재(싸우나스튜디오)



마치 감기에 걸리는 것처럼 갑작스레 꽃과 풀에 미혹되는 순간이 있다. 누군가는 나이 드는 것이라 하지만, 일찌감치 자연이 눈에 들어오고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은 분명 지혜로운 사람이다.

“... 벽촌의 여름날은 지루해서 죽겠을 만큼 길다. 동에 팔봉산, 곡선은 왜 저리도 굴곡이 없이 단조로운고? 서를 보아도 별관, 북을 보아도 별관, 아, 이 별관은 어찌라고 이렇게 한이 없이 늘어놓였을꼬? 어찌자고 저렇게 똑같이 초록색 하나로 왜먹었노?”

수필 <권태>에서 이상은 별관이 ‘똑같이 초록색 하나라고 했지만, 아는 사람의 눈에는 보인다. 그 초록 속에는 어느 하나 같은 것이 없다는 걸. 물론 다층적인 해석이 필요하지만, 이상이 자연에 조금만 관심을 가졌더라면 결코 권태로울 틈은 없었을 텐데.

보태니컬 아트 동호회 그린숲 회원들은 그런 점에서 복 받은 이들이다. 문밖을 나설 때마다 마주치는 풀과 꽃, 나무 어느 하나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는 것이 없으니 그 일상이 얼마나 다채롭고 흥미진진할까. 2024년부터 동호회를 이끌어 온 김민영 대표는 그에 더해 큰 보람과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우리네 삶과 자연의 시간은 공통점이 많다고 생각해요. 그린숲은 자연을 통해 지혜로운 삶을 살고 단단하게 성숙해지는 것을 지향합니다. 식물의 한살이를 보면 긴 겨울을 이겨내 싹을 틔우고, 꽃피우는 화려한 시기가 찾아옵니다. 영원할 듯해도 꽃은 언젠가 낙화하게 마련이죠. 그 모습은 불품없을지 모르지만, 낙화 후엔 다시 열매를 키워가요. 이런 자연의 순환을 관찰하며 희망과 순리를 깨닫다 보면 삶이 단단해짐을 느낍니다.”

보태니컬 아트는 식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하는 예술이다. ‘사실적’이라는 말은 정확성, 정밀성을 동반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찰이라는 연관이 따라오게 마련. 굳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누구나 보태니컬 아트 작품을 보면 단박에 눈치챌 수 있다. 그 어떤 작품보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 힘 빼는 게 이다지도 어렵다니

육아에 전념한 지 10여 년. 일상에 활력이 필요했던 김민영 대표는 취미를 찾던 중 보태니컬 아트를 알게 되었다. 긴 시간 인내력과 집중력을 발휘해야 하지만 완성하고 나면 큰 성취감을 맛볼 수 있는 보태니컬 아트의 매력에 푹 빠져 강사 자격증까지 따게 되었고, 이후 뜻 맞는 이 몇 명과 소박하게 시작했던 모임은 결국 동호회 결성으로 이어졌다. 그린숲은 2024년 12월 향남 카페아르모니아에서의 첫 전시 이후, 올 연말 두 번째 전시를 준비하고 있다. 그 새 회원은 16명으로 늘어났다.

기분을 강조하는 김민영 대표는 보태니컬 아트를 처음 시작하는 회원들에게 무조건 선 연습부터 시킨다. 3개월 정도 선 연습을 거치고 나면 저마다 그리고 싶은 식물을 정해 관찰하고 직접 사진 촬영해 이를 바탕으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 예쁜 사진 한 장 골라 따라 그리는 쉬운 방법 대신, 사계절을 거치며 식물이 성장하는 과정을 살피고 담아내야 작품으로써 가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어느 날 문득 은행잎 새순을 봤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그걸 한참을 보고 다음 해 또 보고 싶어 언제 나오나 하고 1년을 기다렸어요. 사진도 열심히 찍어봤는데, 아직은 실력이 안 돼서 그리지는 못하고 있어요.”

이전까지 흔하디흔한 은행나무에 눈길 준 적 없던 신경선 회원은 그린숲의 일원이 된 덕분에 은행잎 새순을 재발견하고 설렘과 희망이라는 소중한 선물까지 덤으로 받았다. 시작한 지 이제 9개월 남짓인데 아직 ‘힘 빼는’ 것이 어렵다며 열심히 해당화 열매를 칠해가고 있다.

신경선 회원의 말처럼 섬세한 선으로 면을 채워야 하는 보태니컬 아트에서 ‘힘을 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잘 그리고 싶어 잔뜩 힘을 주면, 선은 오히려 흐트러지고 만다. 자연 앞에선 그렇게 애써 힘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듯.

신경선 회원 옆에서 송문주 회원은 분홍빛 백합을 열심히 그리고 있다. 그 역시 동호회 활동을 한 지 9개월 정도 되었다. 많고 많은 꽃 중에서 송문주 회원이 백합을 택한 이유는 뭘까.

“어릴 적 봤던 꽃들 중에서 분홍색 백합이 너무 예뻐던 기억이 있어 그리게 되었어요. 원래 꽃과 식물을 좋아해요. 좋아하는 것들을 하나씩 그리기는 재미가 쏠쏠해요. 그런데 너무 어려워요. 성격이 급한 데다 힘 조절을 못 해 처음엔 연필도 많이 부러뜨렸어요.”

송문주 회원은 그림을 그리다 보면 마음이 차분해지고 잡념이 사라진다고 이야기한다. 어렵지만 완성하고 난 후엔 더없이 뿌듯하다.

올해로 3년 차라는 장혜지 회원의 작품 속에는 다양한 모양의 나뭇잎들이 자리 잡고 있다. 꽃 한 송이나 식물 한 포기 담긴 그림들과는 또 다른 느낌을 준다. “저마다 모양이 다른 식물의 잎으로 작품을 만들고 싶었다”는 장혜지 회원은 핸드폰에 저장된 다양한 작품을 보여주었다. 수많은 식물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나뭇잎을 고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나뭇잎을 보고 또 바라봤을까.

그렇게 그린숲 회원들의 작업 공간에선 알록달록 꽃과 식물이 종이 위에서 새롭게 태어난다. 저마다의 추억과 사연이 앞서귀며, 줄기와 뿌리 사이사이 스며 들에 핀 다른 식물들과는 다른 특별한 존재가 된다.



### 이토록 무해한 취미라니

그린숲 회원들은 일상에서 풀 한 포기, 나무 한 그루 그냥 지나치지 못한다. 핸드폰에 아이들 사진보다 식물 사진이 많아진 회원이 제법 많은 것은 비밀이다. 처음부터 식물을 좋아한 이들도 있지만, 그림을 그리며 점점 빠져든 이들도 있다. 잘 아는 것보다 더 큰 재미를 주는 것이 바로 ‘알아가는 재미’가 아닐까. 여기에 더해 그린숲 회원들은 함께하는 즐거움과 나누는 뿌듯함도 맛보고 있다. 지난 3월 주민자치페스티벌에 참여해 시민들에게 보태니컬 아트를 알린 일 또한 오래도록 기억에 남을 것 같다고.

“시민들이 이렇게 예쁜 작품을 보니 기분이 좋아진다고 해주셔서 기분이 참 좋았어요. 특히 어린이 체험자들이 많았는데, 색을 칠하다 보면 식물을 찬찬히 관찰하게 되고 특징을 알 수 있잖아요. 덕분에 자연에 관심을 갖고 아끼는 마음도 생길 거라 믿어요.”

아이들이 꽃과 식물을 그리는 엄마를 좋아해 덩달아 기분이 좋다는 황윤주 회원의 화폭에는 꽃다발처럼 여러 꽃이 함께 어우러져 있다. 각양각색 특징이 모두 다르지만 함께 어울리면 더 고운 꽃다발처럼 그린숲 회원들은 서로 존중하고 아끼며 자신들이 그린 그림처럼 일상을 아름다운 색으로 채워가고 있다. 그린숲은 보통 일주일에 한 번 모여 그림을 그린다. 요즘처럼 전시를 준비할 때는 비정기적으로 모여 작업 내용을 공유하기도 한다. 40~50대가 주 구성원이지만 20대, 70대 이상도 있다. 좋은 스승이 있어야 훌륭한 제자가 탄생하기 마련인지라, 김민영 대표의 수업을 따라가다 보면 누구나 작품을 완성할 수 있으니 미술에 소질이 없다 하더라도 두려움 없이 도전하면 된다.

“제가 수업할 때 모든 분께 하는 말이 ‘힘 빼세요, 천천히 하세요’예요. 그러면 다들 ‘한국 사람이 어떻게 천천히 해’라고 하세요. 성격이 급해서 어렵다고 하시면서도 꾸준히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변해요. 선이 부드러워지고 점점 차분해지시죠.”

김민영 대표는 그렇게 변해가는 회원들을 보며 보람을 느낀다고 한다. 바쁘게 보내는 시간이 있으면 천천히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듯, 그림을 통해 삶의 밸런스를 맞춰가길 바라며.

“보태니컬 아트처럼 무해한 취미가 또 있을까요. 있는 그대로의 자연에서 영감을 얻고 자연을 화폭에 옮기는 동안 차분히 자신의 내면에 집중하게 되고, 세상을 새롭게 볼 수 있는 시야를 터득하게 되죠. 무엇보다 경쟁이 필요 없는 일이에요. 어떤 그림을 그려갈지 방향성에 대해서로서 정보를 공유하고 어려운 부분은 함께 해결하지요. 이렇게 공유와 공존을 실천하니 무해한 삶에 가까워질 수밖에요.”

김민영 대표의 말을 듣고 보니 보태니컬 아트는 단점이 없는 취미이자 예술인 듯싶다. 회원들에 따르면 단점이 있긴 하다. 한번 빠져들면 너무 오랫동안 계속해 허리가 아프다는 것. 물론 그 단점이 이토록 아름다운 취미를 즐기는 데 해가 될 리는 없을 듯.

### 보태니컬 아트 동호회 ‘그린숲’

활동기간 2024년 12월~  
 회원구성 40~50대 여성  
 활동문의 인스타그램 @kim\_min\_o  
 이메일 marine8412@naver.com

문화소식

평화와 희망의 땅, 매항리를 누리다

매항리는 과거 미 공군의 폭격 훈련장으로 주민들의 조용한 일상과 평범한 삶을 빼앗긴 아픔의 공간이었다. 평화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사격장은 폐쇄되었고 매항리는 평화의 공간으로 그리고 철새들의 서식지인 생명의 공간으로 탈바꿈했다. 매항리평화기념관과 평화생태공원, 농섬은 군사적 폐허에서 벗어나 희망의 장소로 탈바꿈했으며, 이러한 매항리의 의미 있는 변화를 알리기 위해 '평화와 희망, 소중한 매항리를 누리다'라는 주제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관광공사가 주관한 '2025년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공모사업에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이 최종 선정되어 화성시를 대표하는 관광콘텐츠로 육성할 계획이다.

8월 말부터 11월까지 총 12번을 기획하고 있는 이번 상품은 극 공연, 음악회, 북 콘서트, 영화 상영 등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저서생물(底棲生

物) 관찰, 철새 탐방 등 생태체험 프로그램들을 경험할 수 있다. 상품 운영기간 동안 지역 주민들과의 공동 작업으로 고유 음식 개발, 레시피 작업 및 음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하고 있으며 안내자, 해설사, 전시관 도슨트 등 투어 상품 운영 인력 대상 관광 전문 교육을 진행함으로써 지역관광의 지속 가능한 관광모델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

또한 매항리의 역사와 생태 복원 과정을 좀 더 알기 쉽게 이해하고자 디지털 도슨트 프로그램 앱을 선보일 계획이며 재미있는 미션 게임도 함께 도입해 참가자들 대상으로 또 다른 체험 거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시** 8월~11월  
**장소** 매항리평화기념관 및 평화생태공원·농섬 일원  
**문의** 화성시문화관광재단 관광콘텐츠팀  
(031-290-4625, 4627)  
**예매** 화성시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 및 SNS 참조



효의 도시 '화성특례시'에서 펼쳐지는 역사 문화 축제  
2025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능행차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9월, 화성특례시에서는 조선의 효(孝) 정신을 기리는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 2025년 9월 27일(토)부터 28일(일)까지 이틀간 정조효공원을 중심으로 펼쳐지는 '정조효문화제'는 조선제22대 왕, 정조대왕의 효심과 개혁 정신을 기리는 대표적인 역사 문화 축제다.

화성시 융릉은 정조가 아버지 사도세자의 묘를 직접 이장한 장소이자, 정조의 진심 어린 효심이 깃든 의미 있는 공간이다. 이를 바탕으로 재현되는 '정조대왕능행차'는 축제의 백미다.

올해는 행차 경로에 새로운 변화가 더해졌다. 기존의 동탄 출발 구간 대신, 전통 구간인 황계동과 현대 도시공간인 센트럴파크에서 각각 출발한 두 행렬이 현충원에서 합류해 정조효공원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행진이 펼쳐진다. 700여 명이 참여하는 대규모 행렬

은 각 구간에서 시민들과 함께 어우러지며, 도심 한복판에서 역사를 마주하는 생생한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축제 현장에서는 능행차 외에도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기다리고 있다. 정조와 혜경궁을 재현하는 '정조대왕-혜경궁 선발대회', 전통의상을 입고 펼쳐지는 복식 퍼레이드, 메인 무대에서 진행되는 공연 프로그램과 체험 부스 등 시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구성으로 축제의 현장을 풍성하게 채울 예정이다.

**일시** 9.27.~9.28.  
**장소** 정조효공원 및 용건릉, 용주사, 만년제 일원  
**상세정보** 정조효문화제 축제 공식 홈페이지  
**문의** 축제기획팀(031-290-4675)



## 시민을 위한 도시 속 무대, 화성예술의전당

### 화성예술의전당

위치 경기 화성시 오산동 567-3 (동탄2지구 자라외공원 내)

규모 연면적 13,749㎡ (지하 1층~지상 3층)

주요 시설 대극장(1,450석), 소극장, 야외공연장





화성예술의전당 투시도



화성예술의전당 내부 인테리어(안)

2026년 1월, 화성시 동탄 자라외공원 한가운데에 새로운 공연장이 문을 연다. 이름은 화성예술의전당. 공연장에 '전당'이라는 이름이 붙으면 조금은 멀게 느껴지기도 한다. 커다랗고 근엄한, 그만큼 시민과는 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화성예술의전당이 지향하는 방향은 조금 다르다. 거창함보다는 단단한 기반, 화려한 상징보다 실질적인 접근성이 중심에 있다. 이곳은 특별한 날 어렵게 예매해 찾는 무대가 아니라, 일상 안에서 자연스럽게 예술을 만나는 장소가 되고자 설계되었다.

화성시 동탄 자라외공원 내에 조성되는 화성예술의전당은 자주 걸던 산책길 곁에서 일상과 나란히 놓이는 무대로, 1,450석 규모의 대극장과 건축기획 중인 소극장, 향후 조성될 야외공연장까지 포함하고 있다. 클래식부터 뮤지컬, 전통 공연, 대중음악까지 다양한 장르가 무대에 오를 수 있도록 설계된 대극장은 장르의 구분 없이 관객이 쉽게 다가갈 수 있는 공연을 올린다. 소극장은 창작자와 실험적인 콘텐츠를 위한 공간으로 활용될 예정이며, 야외공연장은 공원과 연결되는 열린 무대로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를 기획하는데 초점이 맞춰질 예정이다.

이 공연장이 처음 기획된 것은 2019년이다. 화성시의 급속한 도시 성장과 함께 공연문화에 대한 수요 역시 점차 높아지고 있었지만, 정작 많은 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대극장은 부재했다. 이에 화성시와 NH,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은 공연 수요 조사, 기본 및 실시 설계, 건축 공사, 운영방안 수립 등 단계적인 과정을 거쳐 공연장 건립을 추진했고, 마침내 2026년 1월 화성예술의전당이 개관을 앞두고 있다.

단순히 공연장을 짓는 것을 넘어, 이 시설이 지역 안

에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을지를 중심에 두고 설계가 이뤄졌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은 도시의 외형이 아니라 시민의 일상 속 풍경을 바꾸는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했다.

누군가에게 공연장은 생애 첫 클래식 관람의 기억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자녀와 함께 본 어린이 연극으로 남고, 혹은 청년 예술가가 처음 무대에 선 날의 장면으로 새겨진다. 공연장은 이런 크고 작은 순간들을 축적해가는 장소다. 그리고 그런 개인의 기억들이 모여 도시의 문화적 정체성을 구성한다. 화성예술의전당은 이처럼 사람의 경험을 중심에 둔 공연장을 지향한다.

2024년에는 전담 조직과 운영모델을 갖추고, 2025년 현재는 시스템 점검과 콘텐츠 기획의 마무리 단계에 있다. 개관을 위한 모든 준비는 거의 끝났고, 이제는 무대를 채워갈 시간만이 남아 있다. 도심 가까이에 마련된 이 공연장이 앞으로 화성의 문화 흐름을 어떻게 바꿔 갈지는 아직 알 수 없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하다. 예술을 일상에서 만나는 경험이 쌓일수록, 사람들은 점차 이 공간을 '특별한 곳'이 아니라 '익숙한 곳'으로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많은 시민에게 사랑받는 화성예술의전당이 되기를 바라본다.

한눈에 보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

8~10월  
공연·전시·행사  
캘린더

# 8 August

- 공연
- 전시
- 축제
- 기타 행사
- 기타

7/29	● 2025 동탄복합문화센터 기획전시 <겹쳐진 자리> 7.29.(화)-9.11.(금) / 동탄아트스페이스 아트스퀘어	17	●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0회차 8.17.(일) 14:00 / 발안시장 내
1		18	
2	●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9회차 8.2.(토) 13:00 / 발안시장 내 ● 연극 <사형수 김대중> 8.2.(토) 17:00 / 화성아트홀	19	
3		20	
4		21	● [자유공간+] <화성 뮤지컬 살롱 'A-MU'> 6회차 8.21.(목) 19:00 / SCN아트홀
5		22	● 국악 <경성유행가판을 나온 소리> 8.22.(금) 19:30 / 반석아트홀
6		23	
7	● [자유공간+] <화성 뮤지컬 살롱 'A-MU'> 5회차 8.7.(목) 19:00 / SCN아트홀	24	●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1회차 8.24.(일) 14:00 / 발안시장 내
8		25	
9	● [자유공간+] <마주메스타> 10회차 8.9.(토) 13:00 / 민들레연극마을	26	
10		27	● [자유공간+] <옥상으로 따라와 - 시즌 2> 9회차 8.27.(수) 18:30 / 봉담문화의집 옥상 ● 2025 핵서 콘서트 PART II <어머님의 노래, 우리 가곡> 8.27.(수) 19:30 / 반석아트홀
11		28	
12		29	
13	● [자유공간+] <옥상으로 따라와 - 시즌 2> 8회차 8.13.(수) 18:30 / 봉담문화의집 옥상	30	● 경기도 융복합 관광콘텐츠 개발 '평화와 희망, 소중한 매항리를 누리다' 갯벌 퍼포먼스 개막 프로그램 8.30.(토) / 매항리평화기념관
14	● 뮤지컬 <다시, 봄> 8.14.(목) 19:30 / 반석아트홀	31	● [자유공간+] <2025 이주 이야기 프로젝트> 12회차 8.31.(일) 14:00 / 발안시장 내
15	● 뮤지컬 <다시, 봄> 8.15.(금) 15:00 / 반석아트홀		
16			



# 9 Septembe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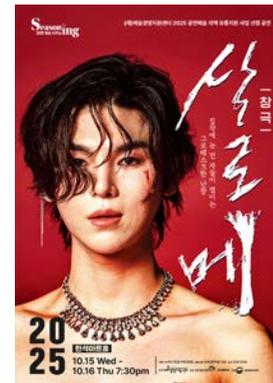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 10 October

- 공연
- 전시
- 축제
- 기타 행사
- 기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 letter

《화분》 봄호를 읽고 보내주신 독자 여러분의 의견입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봉담도서관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더 이상 췌린지가 아닐 때까지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화성 특산물 및 문화유산, 아이들의 특집 기사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누구나 접할 수 있도록 다양한 아이디어를 찾아 발전하는 《화분》이 되길 기원합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우편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THE 답다 - People. 화성 시민들의 생각을 다양하게 접할 수 있고 공감되어서 좋았습니다.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방학과 휴가철에 접어드는데 다양하게 바캉스를 즐기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일상생활을 하루하루 지속해가면서 특별하게 문화생활이나 소식지를 접하기가 쉽지 않은데, 《화분》을 통해서 화성시에서 주최하는 다양한 문화행사와 예술가를 알게 되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 《화분》을 만나셨나요?  
 감사하게도 우편으로 받았습니니다.  
 가장 반가운 우편물이예요 :)

이번 호 구성에 대한 만족도는 어떠셨나요?  
 ① 매우 좋다 ② 좋다 ③ 보통  
 ④ 좋지 않다 ⑤ 매우 나쁨

이번 호에서 가장 유익했거나 좋았던 콘텐츠는 무엇인가요?  
 테마가 있는 '복적복적' 도서관 세 곳

다음 호에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여름과 관련 있는 책, 공연 등의 정보 부탁드립니다.

《화분》 편집부 또는 화성시문화관광재단에 전하고 싶은 말씀을 적어주세요.  
 언제나 알찬 내용으로 행복하고 설레는 마음으로 읽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화성 시민들이 편안하게 참여할 수 있는 공간, 소식 많이 전해주세요.

## 《화분》 독자 만족도 조사

《화분》은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더욱 의미 있는 소식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만족도 조사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QR코드를 스캔해주세요.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방법** QR코드 스캔 후 설문 조사에 응답  
**설문기간** 2025년 8월 23일까지  
**당첨발표** 2025년 8월 26일(개별 연락)

# place

《화분》은 아래 장소에서 무료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운영하는 곳에 《화분》을 놓아두고 싶은 분은 031-8015-8112로 문의 주세요.

## 배포처

동탄복합문화센터  
화성시미디어센터  
화성시생활문화센터  
화성아트홀  
반석아트홀  
누림아트홀  
화성열린문화예술공간

## 도서관

동탄다원이음터도서관  
동탄복합문화센터도서관  
동탄중앙이음터도서관  
왕배푸른숲도서관  
두빛나래어린이도서관  
동지나래어린이도서관  
봉담도서관  
병점도서관  
삼괴도서관  
서연이음터도서관  
송산도서관  
송린이음터도서관  
정남도서관  
진안도서관  
태안도서관  
노을빛도서관

## 작은도서관

샘내작은도서관  
기아행복마루도서관  
비봉작은도서관  
마도작은도서관  
팔탄작은도서관  
양감작은도서관  
호수나무작은도서관

## 문화시설

노작홍사용문학관  
화성ICT생활문화센터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화성시어린이문화센터  
반도문화재단 아이비라운지  
소다미술관  
염미술관

## 카페

다락  
다원  
달팽이그림책카페  
손커피연구소  
차마시는뜰  
카페오카페  
카페 라온트리  
디안  
섹션  
프라하

## 호텔

라비돌리조트  
푸르미르호텔

## 기타

독립서점 모모책방  
갤러리문화아지트  
신자연주의공방  
공방 7보다  
서울건치과  
서해랑 제부도해상케이블카

《화분》은 웹진으로도  
만나실 수 있습니다.  
hwaboon.hcf.or.kr



화성시문화관광재단  
SNS에서  
재단 소식을 가장 먼저  
만나보세요.

